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異文化 인지도에 따른
외래 관광객에 대한 태도 연구
-서귀포시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濟州大學校 經營大學院

觀光經營學科

高 旻 廷

2011年 8月

碩士學位論文

異文化 인지도에 따른
외래 관광객에 대한 태도 연구
-서귀포시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濟州大學校 經營大學院

觀光經營學科

高 旻 廷

2011年 8月

異文化 인지도에 따른
외래 관광객에 대한 태도 연구

-서귀포시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指導教授 서 용 건

高 旻 廷

이 論文을 觀光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1年 8月

高 旻 廷의 觀光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_____

委 員_____

委 員_____

濟州大學校 經營大學院

2011年 8月

A Study of Attitudes toward International
Tourists According to Recognitions
of Other Cultures

-Focused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Seogwipo-

Min-Jeong Ko

(Supervised by professor Yong-Kun Suh)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Tourism Science

2011. 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
.....
2011. 8.
.....

Department of Tourism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4
3. 연구방법 및 범위	6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7
1. 문화의 개념과 문화접변	7
1) 문화의 개념	7
2) 이문화의 개념	11
3) 문화접변	12
2. 이문화 인지도의 개념	14
1) 인지도의 개념	14
2) 이문화 인지도	17
3) 인지도의 특성	20
3. 외래 관광객에 대한 태도	21
1) 태도의 개념	21
2) 문화에 대한 태도	22
3) 이문화에 대한 태도	24
4) 태도의 구성요소	27
4. 선행연구	29

Ⅲ. 연구 설계	34
1. 연구모형 및 가설의 설정	34
1) 연구모형	34
2) 가설의 설정	34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35
2. 연구 조사설계	36
1) 설문지 구성과 자료의 측정	36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37
Ⅳ. 분석결과	38
1. 표본의 구성과 특성	38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38
2. 측정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40
1)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40
3. 연구가설 검증	45
1) 연구가설 1의 검증	45
2) 연구가설 2의 검증	47
3) 연구가설 3의 검증	48
4. 분석결과 요약	54
Ⅴ. 결론	59
1.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59
2. 연구의 한계와 제언	62



The logo of Jeju National University is a large, stylized 'J' shape. The left vertical stroke of the 'J' is composed of three curved, overlapping bands in blue, green, and grey. The right vertical stroke is a solid purple 'J' shape. In the center of the 'J', there is a smaller logo featuring a book icon above the text 'JEJU 1952'. The entire logo is set against a background of a large, faint watermark of the university's name in English ('JEJU NATIONAL UNIVERSITY 1952') and Korean ('제주대학교').

참고문헌	64
1) 국내문헌	64
2) 국외문헌	67
설문지	73
ABSTRACT	80

<표 차례>

<표 1-1> 설문조사 개요	6
<표 2-1> 국내·외 연구자들의 문화의 정의	9
<표 2-2> 문화의 구성요소	11
<표 2-3> 인지발달 단계별 특성	16
<표 2-4> 태도의 개념 및 연구내용	21
<표 3-1> 설문지의 구성	36
<표 4-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39
<표 4-2> 외국 경험에 따른 이문화 인지도 차이	40
<표 4-3> 이문화 흥미도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결과	42
<표 4-4> 이문화 교육 참여도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결과	42
<표 4-5> 이문화 인지도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결과	43
<표 4-6> 외래 관광객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결과	44
<표 4-7>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이문화 인지도의 차이 분석	46
<표 4-8> 이문화 흥미도, 이문화 교육 참여도에 따른 이문화 인지도 차이	47
<표 4-9> 이문화 인지도에 따른 외래 관광객에 대한 태도와 인식 차이	48
<표 4-10>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외래 관광객에 대한 태도와 인식의 차이 분석	49
<표 4-11>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외래 관광객에 대한 태도와 인식의 차이 분석	50
<표 4-12>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외래 관광객에 대한 태도와 인식의 차이 분석	51
<표 4-13> 이문화 흥미도, 이문화 교육 참여도에 따른 외래 관광객에 대한 태도와 인식 차이 분석	52
<표 4-14> 이문화 흥미도, 이문화 교육 참여도에 따른 외래 관광객에 대한 태도와 인식 차이 분석	53
<표 4-15> 이문화 흥미도, 이문화 교육 참여도에 따른 외래 관광객에 대한 태도와 인식 차이 분석	53
<표 4-16> 실증분석 결과요약	54
<표 4-17> 외국 방문 학생 대상 심층 질문	57

<그림 차례>

<그림 2-1> 문화접변의 과정	13
<그림 2-2> 한국 초·중·고 사회과목 속의 다문화이해교육	19
<그림 2-3> 관광 사회학적 측면의 이방인-현지주민과의 관계	25
<그림 2-4> 태도의 개념과 구성요소	28
<그림 2-5>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9
<그림 3-1> 연구모형	34

I. 서론

1. 연구의 배경

오늘날 세계는 교통, 통신 등의 발달로 점점 국가 간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해외여행, 문화 교류 및 이민을 통한 외국인과의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에 문화접변현상이 보편화되고 있다. 또한 문화는 공간적, 시대적으로 다양하고 지속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그 지역을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 현지주민을 포함하여 관광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Reisinger(1994)는 여행목적지 선택에 있어서 현지 주민과의 접촉이 점차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며 향후 국제관광 분야에서 외래 관광객과 현지 주민간 이문화적 상호작용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제14차 WTO 서울·오사카 총회(2001)에서는 ‘평화와 관광에 관한 서울 선언문(Seoul Declaration)’과 ‘오사카 밀레니엄 선언문(Osaka Millenium Declaration)’을 채택함으로써 관광을 통한 교류와 협력이 상호 문화적 이해를 증진하고 나아가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개방과 교류의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문화 충돌 사례들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면서 문화는 정치, 경제, 교육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화두가 되어있다(Berger & Huntington, 2002: p.33-34; Ferraro, 2002: p.5-10).

교육 분야에 있어서 세계화에 대한 대응은 일반적으로 ‘국제경쟁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과 ‘국제이해를 위한 교육’이라는 방식으로 나타나며¹⁾ 언어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언어의 구사력뿐 아니라 문제해결 능력과 적극적인 교류 자세, 이문화(異文化)에 대한 이해 등 ‘이문화간 의사소통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이 시대에 필요한 외국어 교육의 이념과 목표가 평화와 인권과 공생(共生)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적 정의에 입각한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이념 하에 배양된 능력 신장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덕봉, 2003: p.349; 김대행,

1) Baker(2000)는 ‘국제 이해(international understanding)’와 세계적 능력(global competence)’의 함양을 강조하며 미국교육이 세계화 사회의 교육에서 나아갈 길을 묻고 있다.

2000: pp.7-11)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문화 이해를 위한 이문화 교육은 미국과 같은 다민족 국가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민족간의 갈등 해소와 공존을 위한 교육에서 시작되어 역사적 배경이 다양한 인종그룹으로 이루어진 유럽에서 강조되면서 발전되어 왔다. 이문화 교육은 ‘다문화교육’, ‘국제이해교육’, ‘이문화간 커뮤니케이션 교육’, ‘이문화간 교육’ 등 세계 도처에서 각 전문 분야의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어 왔는데²⁾, 이는 이문화 교육이 외국에 대한 단순한 정보나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상호의존성에 근거한 대화 증진의 중심에서 있음을 의미한다.

George Peter Murdock은 문화 양식들의 보편적 특성을 7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문화 양식들은 인간의 정신으로부터 나온다. 둘째, 문화 양식들은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촉진한다. 셋째, 문화 양식들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 넷째, 문화 양식들은 누적적이며 내외적 조건 하에서 변화한다. 다섯째, 문화 양식들은 지속적 구조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여섯째, 문화 양식들은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학습되고 공유된다. 일곱째, 문화 양식들은 신세대로 전달된다. 이렇듯 문화는 다양한 특성을 지닌다.

서로 다른 문화가 접촉하여 변화하는 과정에서 문화를 운반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미디어, 유학생, 고용 외국인, 이주민, 외래 관광객 등이 포함된다. 문화접변의 과정은 한편으로는 수용자 측 문화에서의 부분적 해체가, 다른 한편으로는 외래 문화요소의 전파와 제시가 있어야 시작된다. 외래 문화요소의 전파와 제시는 추상적인 표현법이다. 실제로는 특정 문화요소를 공간적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 내지는 미디어가 있어서 문화접변이 시작된다. 이 외래 문화요소의 전파·제시의 담당자를 ‘문화 운반자(cultural carriers)’라 부른다.

구체적으로는 유학생, 고용 외국인 교사, 외국인 기술자, 선교사 나아가 무역상인, 식민자, 외국 여행자나 관광객, 때로는 군인도 밖의 문화로부터 새로운 문화요소를 운반해온다. 한편 이러한 사람들이 매개되지 않더라도 실물, 서적, 영화, 전화,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위성방송 등 미디어를 통한 정보 이동에 의해 문화요소가 전파되는 일도 있다(히라노 겐이치로, 2004). 문화 운반자는 이러한 사람들과 미디어를 총칭하는 말이다.

2) 박용구 역(2005). 『이문화간 커뮤니케이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p.290.

이 중에서 외래 관광객은 가장 광범위하고 빠르게 문화접변 현상을 일으키는 요소로 분류할 수 있다. 외래 관광객이 문화 운반자가 되는 경우에는 두 방향이 있다. 하나는 외국에 여행한 사람이 여행지에서 발견한 문화요소를 본국에 가지고 돌아오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외국에 여행하는 사람이 본국에서 여행지 나라에 문화요소를 가져가는 경우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 세계자연유산 등재 등 국제적인 관광지로 거듭나면서 매해 외래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있고 외래 관광객이 제주의 다양한 지역을 관광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제주에 전파하고 또한 우리의 문화를 배워가기도 한다. 이렇듯 세계가 글로벌화 되는 상황에서 현지주민의 이 문화에 대한 인지 및 외래 관광객에 대한 태도에 관한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최근 문화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제6차 교육 과정에 비해 제7차 교육 과정에서 새롭게 제시된 내용은 바로 ‘문화’에 대한 것으로써 영어과의 성격, 영어과의 목표, 영어과의 내용 체계 중 언어 재료 부분에 그 중요성이 언급되어 있다. 이는 외국어 교육이 단순히 언어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도구로 그 언어가 사용되는 사회의 문화에 접근함으로써 학습자의 개인적 시각과 이해의 폭을 넓히고 세계 시민으로서의 적응력과 소양을 기르는 것이 외국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보는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다.³⁾

Hall(1960)은 “의사소통이 문화요, 문화가 곧 의사소통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우리의 생활 조직이 언어를 가지고 엮어 나가는 의사소통의 연속이기 때문에 자기 문화권 이외의 다른 문화권에 속한 사람과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곧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 양식, 행동 양식을 익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광산업 분야는 현재 세계 취업인구의 10% 이상을 점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세계의 관광객 수는 연평균 4.2%에서 4.4%의 비율로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정부는 NTA(National Tourism Administration) 또는 관광정책을 통하여 관광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어 관광의 중요성은 결코 과소평가 할 수 없는 실정이다⁴⁾.

3) 교육부(1999). 『초등학교 교육 과정 해설(V)』,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4) 오상훈(2005). 『관광과 문화의 이해』, 서울: 형설출판사, p.25.

이렇듯 국제사회에서도 관광을 통한 이문화간 접촉과 상호이해 증진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과 더불어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 중 하나가 외래 관광객이다. 나라마다 다양한 관광지들이 있고, 그 지역마다 외래 관광객들이 있는데, 외래 관광객은 현지주민과 긴밀한 접촉을 하게 된다. 이때 현지주민은 그들 문화의 인지정도에 따라 외래 관광객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지주민의 태도가 외래 관광객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광범위하다.

우리나라 성인들은 다른 인종이나 민족 구성원에 대해 그들의 피부색과 출신 국가의 경제력 등을 기준으로 이중 잣대를 행사한다는 연구 결과(박윤경, 2006)와 한국인들의 이문화 인식이 조사대상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⁵⁾는 올바른 이문화 인지 및 수용 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어릴 적 올바른 문화 인지를 통해 형성된 긍정적 태도는 외래 관광객들에게 재방문의 기회를 제공하며, 더 나아가 관광산업, 국가 경쟁력에 큰 보탬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가정이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이며, 문제의 제기이기도 하다. 이는 외래 관광객에 있어서도 자신들이 방문한 나라의 이미지를 어떻게 기억할 것 인지와도 많은 관계가 상존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할 수 있다.

2. 연구의 목적

관광의 본질은 문화행동과 접촉이며, 관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異) 문화적 접촉이다. 다른 문화권 관광경험은 모든 해외 관광객에 의해 발생하는 문화 간 만남이며 관광객의 관광행동에 영향을 미친다(Brislin et al., 1996).

한 사회의 문화권 속에서 받아들일 만한 행위가 다른 문화권 속에서는 혐오감

5) 한국인들의 이문화에 대한 인식은 1998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소(IMD)에서 조사한 국제경쟁력 평가에 의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문화 적응력은 조사 대상국 46개국 중 최하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박기순(2001)). 『한국인과 문화간 커뮤니케이션』, 박영출판사), 55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7년 평가에서도 ‘인종차별’이 51위, ‘문화적 개방성’은 55위로 외국인들에게 매우 배타적인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유창무, 2008).

을 느끼게 할 수도 있다(Pizam & Sussmann, 1995). 국가문화는 해외관광 중에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들의 사회적 행동에 있어서 차이를 설명하는데 이용되어 질 수가 있다(March, 1997; Rokeach, 1973). 그리고 관광객들 간의 국가문화의 차이는 관광객들이 가지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가치, 사회적 행동, 태도, 인지, 욕구, 기대, 경험, 신념, 규범, 동기 그리고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패턴 속에서 규명되어질 수 있다(Burns & Holden, 1995; Fridgen, 1996).

현지주민과 외래 관광객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외래 관광객의 관광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문화와 관련된 현지주민의 태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왔다.

Bank(1994, 2002)는 어린 학생들의 인종적 태도는 성인의 인종적 태도를 반영한다면 Litcher & Johnson의 연구를 인용하여 어린 학생들의 인종적 태도 변화에 가장 성공적인 변수는 교사의 인종적 태도와 기술, 교실 분위기라고 언급하고 있다⁶⁾.

Comes(1991)도 학생들의 인종적 태도는 아동의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성인인 부모와 교사 등이 속한 문화, 그들의 견해 및 태도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있다⁷⁾.

이렇듯 인성형성에 있어 중요한 시기인 8세부터 13세의 초등학생들에게 이문화에 대한 이해⁸⁾ 및 인지도와 외래 관광객에 대한 태도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문화 인지도에 따른 외래 관광객에 대한 태도의 구조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초등학생의 이문화 인지도를 알아보고 이러한 인지도에 따라 초등학생이 외래 관광객을 대하는 태도·인식과 어떤 관계가 있

6) Bank, J. A.(1994). *An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 Boston: Allyn & Bacon. p.43.

_____(2002). *An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3rd ed.), Boston: Allyn & Bacon, p.44.

7) 박윤경(2007). 다문화 접촉 경험의 교육적 의미 이해, <시민교육연구>, 39(6), 『한국사회과교육학회』, pp.147-183.

8) Neuner(1994: p.26)는 학습자의 정체성 형성과정 이론에서 출발하여 이문화 이해를 위해 요구되는 4가지 핵심 능력을 ① 역할의 객관화(객관적인 자기 판단 능력): 자기 입장에서 벗어나 외부와 거리를 두고 자기 위치를 볼 줄 아는 능력, ② 감정이입능력: 다른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서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 ③ 양면성의 관용: (다른 사람들의) 모순되는 요구와 기대를 참아내는 능력, ④ 자기의 입장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자신의 입장을 내세울 줄 아는 정체성 의식 및 묘사 능력으로 보았다(김미승, 2003), p.62에서 재인용.

는지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목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의 특성에 따라 이문화 인지도에는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는 데 있다. 둘째, 이문화 인지도에 따라 외래 관광객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는데 있다. 셋째, 초등학생의 특성에 따라 외래 관광객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는데 있다.

3.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계 속의 관광지로 성장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지역의 초등학생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궁극적으로는 이문화를 어떻게, 얼마나 인지하고 있고, 이러한 이문화 인지도와 외래 관광객에 대한 태도와 인식간의 상관성에 대해 알아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초등학생의 올바른 이문화 인지 및 긍정적인 태도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정량적 접근방식으로 설문지 조사방법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연구지역인 서귀포시 내에 거주하는 5~6학년의 초등학생으로 한정하여 2011년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1-1> 설문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조사일시	· 2011년 4월 14일 ~ 4월 25일(12일간)
조사대상	· 서귀포시 5 ~ 6학년 초등학생 400여명
조사방법	· 설문지 조사
조사항목	·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 이문화 흥미도 · 이문화 교육 참여도 · 이문화 인지도 · 외래 관광객에 대한 태도와 인식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1. 문화의 개념과 문화집변

1) 문화의 개념

오늘날 ‘문화’라는 말은 사람들의 생활양식 전체를 가리키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개념적 특성은 문화인류학자가 시작한 것인데, 이제는 일반적인 용어가 되었다. ‘문화’는 매우 포괄적이고 복잡한 것이어서, 문화를 일반적으로 한 마디로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문화는 동·서양에 따라, 혹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

Kroeber, A. L. and Kluckhohn, C. ⁹⁾에 따르면, 서양에서는 “160 여가지나 되는 문화의 정의가 있다.” 서양은 문화를 “자연을 그대로 두지 않고 거기에 사람이 의식적으로 손을 대는 행위 및 결과”로 정의하며, 인간을 포함한 모든 자연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반면, 동양에서의 문화는 “문으로 다스리고 바르게 가르친다¹⁰⁾.”는 문치교화(文治教化)의 의미로 정의하였다. 이는 문(文)을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전범(典範)을 가리키는 것으로, 화(化)는 문을 이용하여 인간의 삶의 양식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이처럼 동양에서는 그 대상을 사람으로 한정하였다.

이러한 문화의 정의는 학자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이는 문화를 학자가 어느 관점에서 혹은 어느 학문 영역에서 보느냐에 따라 많은 차이로 정의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문화라는 말을 오늘날 사용되는 넓은 의미로 처음 사용한 사람은 독일의 역사학자인 클렘으로 알려져 있다.

Clyde Kluckhohn¹¹⁾은 문화란 후천적·역사적으로 형성된 외면적 및 내면적인 생활양식의 체계로서 집단의 전체 또는 특정의 구성원에 의해 공유되는 것이라

9) A. L. Kroeber and C. Kluckhohn(1952). *A Critical Review of Concept and Definitions of Culture*. New York: Vintage Books: 고영복(1997). 『문화사회학』,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p.4에서 재인용.

10) 유태용(1999). 『문화란 무엇인가』, 서울: 학연문화사, p.13.

11) Kluckhohn, C.(1905-1960), 미국의 문화인류학자.

고 정의했고, Adamson Hoebel¹²⁾은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공유되고 학습된 행위의 총체라고 정의하였다.

Hall(1965)¹³⁾은 문화를 한 국민의 생활양식, 학습된 행동형과 태도, 물질적인 거의 총합이라고 정의했다. 문화의 특성으로는 첫째, 문화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학습되는 것이며, 둘째, 여러 가지 요소가 상호관련을 맺으며 내재되어 있고, 셋째,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공유되며 다른 사회의 구성원들과 확연히 구별할 수 있다고 하였다.

Brown(2000)은 문화를 “특정시대, 특정민족의 특성을 나타내는 생각, 관습, 기술, 예술, 도구”라고 규정한다. 이는 문화를 인간의 사고와 감정을 포함한 생활양식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Brooks, N.(1964)는 문화를 첫째, 생물학적 성장(biological growth), 둘째, 개인적 교양(personal refinement), 셋째, 문학과 미술(literature and the fine arts), 넷째, 생활양식(patterns for living), 다섯째, 생활방식의 총체(the sum-total of a way of life)라고 세분화하여 정의 내리고 있다.

그에 따르면 언어 교육과 관련해서는 이 다섯 가지 의미 중에서 ‘생활양식’을 가장 중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생활양식은 모든 종류의 인간 생활 장면에서 영구히 계속되는 무상한 개인의 역할이며, 태도나 행위의 규칙 및 규범에 관계된 일”인데, 그는 이 생활양식을 다시 ‘형식적 문화(formal culture)’와 ‘심층적 문화(deep culture)’로 양분하였다.

형식적 문화는 사고, 사상, 행동의 세련 등으로서 개인적 교양과 관계가 있으며, 문학과 미술과도 관계가 있고, 생활 방식의 총체에 해당하는 영웅적 정신, 경제적 노력, 정치, 종교 등과도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심층적 문화는 말하는 법, 식사하는 법, 동작, 생활양식, 가치관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영속성이 있는 문화면을 말한다고 하였다.¹⁴⁾

이 외에도 『금성 국어 대사전』(1993)에서 문화는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

12) A. Hoebel(1906-1993), 미국 University of Minnesota 문화인류학과 교수.

13) E. T. Hall(1965). *The hidden dimension*. New York: Doubleday.

14) N. Brooks(1964). *Language and Language Learning: Theory and Practice*(2nd ed.), New York: Harcourt, Brace and World: 박원(1996). 『영어교육학』, 인천: 인하대학교 출판부, p.427에서 재인용.

득·공유·전달되는 행동 양식 내지 생활양식의 총체 자연 상태와 대립되는 것
 이나 극복한 것으로 언어·풍습·도덕·종교·학문·예술 및 각종 제도 따위라
 고 정의되어 있다.

이렇듯 문화는 동·서양에 따라 혹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이
 상에서 논의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문화에 대한 학자들의 규정을 요약·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표 2-1> 국내·외 연구자들의 문화의 정의

	연구자	문화의 정의
국 내 연 구	금성 국어 대사전(1993)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공유·전달되는 행동 양식 내지 생활양식의 총체 자연 상태와 대립되는 것이며 또한, 그것을 극복한 것임. 언어·풍습·도덕·종교·학문·예술 및 각종 제도 따위
	국어국문학회 (1991)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공유·전달되는 행동 양식 내지 생활양식의 총체, 자연 상태와 대조되는 것이며, 또한 그것을 극복하는 것. 언어·풍 습·도덕·종교·학문·예술 및 각종 제도 따위
	최용재 (1982)	문화는 인간 사회의 어떤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추상적 실체, 유전에 의하여 선천적으로 타고 나는 본능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교습되는 행동양 식,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며 형성, 인류의 사회 공동체가 다양 한 만큼 다양, 사회와 공동체의 경계를 넘어서 전파 됨
국 외 연 구	Clyde Kluckhohn	후천적·역사적으로 형성된 외면적 및 내면적인 생활양식의 체계로서 집 단의 전체 또는 특정의 구성원에 의해 공유되는 것
	Adamson Hoebel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공유되고 학습된 행위의 총체
	Edward Hall	문화는 한 국민의 생활양식, 학습된 행동형과 태도, 물질적인 것의 총합 1)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학습되는 것이며, 2) 여러 가지 요소가 상호관련 을 맺으며 내재되어 있고, 3)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공유되며 다른 사회의 구성원들과 확연히 구별할 수 있다.
	Brown(2000)	문화는 특정 시대, 특정민족의 특성을 나타내는 생각, 관습, 기술, 예술, 도구
	Brooks, N. (1964)	문화는 첫째, 생물학적 성장, 둘째, 개인적 교양, 셋째, 문학과 미술, 넷 째, 생활양식, 다섯째, 생활방식의 총체

아울러 문화에는 보편적인 성격과 개별적인 성격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인류가 두 발로 걷고(Homo Erectus) 불과 도구를 사용(Homo Habilis)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동물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익히게 된 순간부터 인류는 문화를 갖게 되었다고 한다. 동물은 거친 자연 속에서 본능만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인간은 그럴 수 없다.

여기서 인간은 자신의 육체적 능력을 보완하고자 문화를 갖게 된 것이며 이것이 보편적인 문화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자연환경은 구체적으로 어떤 시기와 장소냐에 따라 각기 다르기 때문에 지리적인 차이에 따라 특정한 패턴을 가진 개별 문화가 만들어졌다(겐이치로, 2004).

미국의 문화인류학자인 Valen Smith(1989)는 그의 저서에서 타문화에 대한 이해 수준을 7가지 관광객의 유형(대량관광객부터 탐구적 여행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즉 대량 관광객 일수록 현지 문화 이해도는 낮고 탐구적 여행자 일수록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문화에 대한 이해수준은 사실 관광객 유형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요소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이것은 현지 문화에 대한 지식수준, 연관성, 방문횟수 및 체류기간, 관광객의 성향 및 행태 등이 밀접한 관계에 있을 것이다.

문화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학자마다 주장하는 바가 다르지만, 어느 문화든 내용은 달라도 공통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학계의 공통된 견해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각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계되어서 하나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¹⁵⁾.

문화의 구성요소를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15) 한상복·이문영·문광덕(1982). 『문화인류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표 2-2> 문화의 구성요소

학 자	문화의 구성요소
Vern Terpstra	언어, 종교, 가치, 교육, 법률, 사회조직, 기술 및 물질문화, 정치
Edward Hall	시간 및 공간의식, 물질적 소유, 상호작용, 생존방식, 남녀관계, 학습, 놀이, 환경의 이용
Geert Hofstede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 권력 간격,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정도, 남성다움 대 여성다움
Philip Cateora	사회제도: 사회조직, 교육, 정치구조 물질문화: 기술, 경제 신념체계: 세계관, 가치관 미적정서: 조형예술, 민속, 음악, 연극, 언어
이시다 에이치로 (石田英一郎)	인간, 언어, 가치, 기술, 사회, 자연환경

출처: 서용건(2011). 『국제관광(경영과 문화)』, 서울: 백산출판사.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화의 구성요소는 학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언어, 종교, 가치체계, 사회제도, 예술, 물질문명 등이 포함된다.

2) 이문화의 개념

사람은 다른 나라와 다른 문화권에 이동할 경우에는 언어, 음식, 습관, 가치관 등의 차이 때문에 문화충격과 갈등을 겪게 된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영자들조차도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인식·이해하지 못하거나, 자기 문화적 발상의 고정관념이나 습관 등에 얽매어 문화적 차이를 인지 못하여 치명적인 기업 손실을 초래하기도 한다¹⁶⁾.

이렇듯 이문화는 자국문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자국문화와는 다른 환경-다른 인종, 다른 자연, 인문환경-속에서 형성된 다른 나라의 문화¹⁷⁾로 이문화를 바르게 인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사건은 개인, 집단, 민족, 국가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크게는 전쟁까지도 야기 시킨다.

16) 이덕훈(1999). 『글로벌 기업경영』. 서울: 학문사, p.390.

17) 박진현(2002). 사회과 이문화 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교육대학교.

국제화로 국가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활발한 문화교류가 이루어지는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문화를 바르게 인지하고, 올바른 태도를 형성하여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 문화접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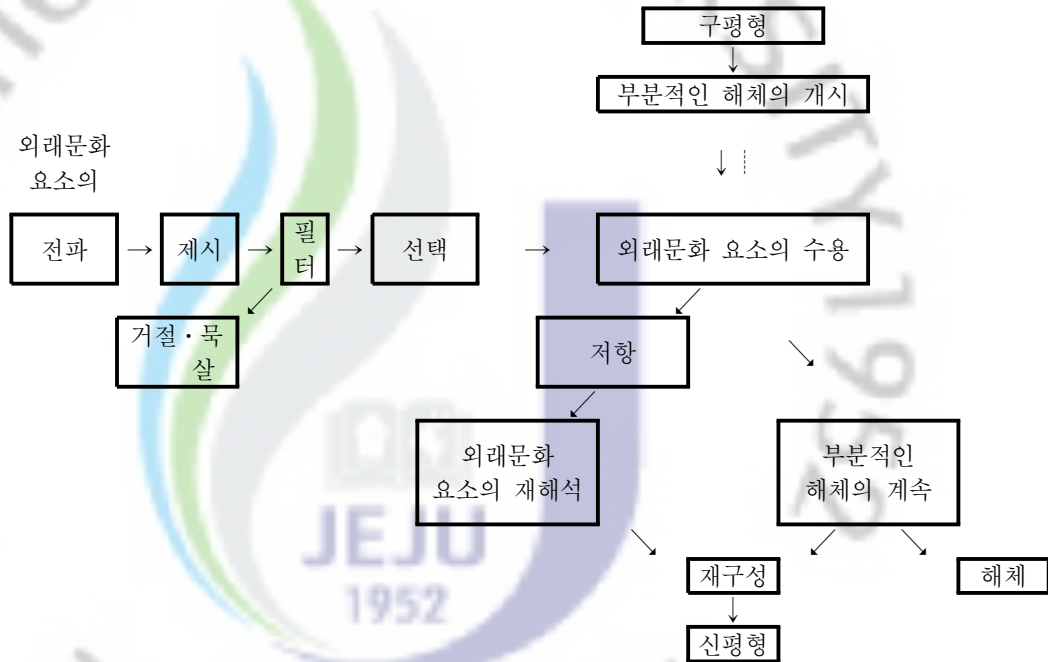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로 들어서면서 국제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복수의 개별 문화 간의 접촉은 끊임이 없을 정도로 빈번해졌고, 이러한 접촉에 의해 각 문화는 격심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러한 이문화 접촉으로 문화마찰·문화접변이 빈번해 졌다.

‘문화마찰’이란 이질적인 문화와 문화가 접촉할 때 일어나는 긴장, 알력 분쟁으로 정의된다. ‘문화접변’이란 1930년대에 미국에서 새로 만들어진 어켈처레이션이라는 말의 번역어로서 문화와 문화가 접촉했을 때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문화에 일어나는 변화를 가리키는 것이다.

‘문화변용’이 한 문화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화 변화인 데에 비해서 ‘문화접변’은 외래의 문화요소가 수용되었을 때 일어나는 문화 변화이므로 그 문화의 시스템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든지 포함해서 국제문화론의 주요한 연구대상이 된다 (히라노 겐이치로, 2004).

<그림 2-1>에서 보여주듯이 문화접변은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문화가 구평형의 상태에서 신평형의 상태에 이르는 과정이다. 따라서 이 그림은 흐름도로 볼 수 있다. 문화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본다면, 그 변동은 이러한 흐름이 시스템 곳곳에서 반복해서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어느 한 시점을 보더라도 문화는 결코 고정적인 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며 항상 어딘가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전체로서는 대체로 안정 상태이며 계속성은 유지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안정이 부분적으로 크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 무너진 상태에서는 사람들의 생활을 지탱한다는 문화의 의미 그 자체가 없어지게 되므로 대부분의 경우 그 혼란 상태를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새로운 안정, 즉 평형상태를 획득하려는 움직임이 문화 내부에서 생긴다. 문화의 일부에 혼란이 시작되어 어떻게 해서 안정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림 2-1>이다.

<그림 2-1> 문화접변의 과정



출처: 히라노 겐이치로(2004). 『국제 문화론』, 서울: 풀빛.

1960년대 초 미국의 문화인류학자 에드워드 Spicer(1961)¹⁸⁾가 아메리칸 인디언이 경험한 문화접변을 토대로 정리한 바에 의하면, 문화접변의 결과는 편입통합, 동화통합, 격리통합, 융합통합이 있다고 하였다. 이 네 가지는 하나의 문화접변 결과 밖에서 들어온 문화요소가 다른 문화요소와 어떠한 관계를 만들어내는가라는 관점에서 분류한 유형이다.

첫 번째의 ‘편입통합’은 밖에서 들어온 문화요소를 수용자 측 문화에 적응시키도록 재해석하면서 받아들여 문화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의 ‘동화통합’은 첫 번째의 편입통합과 반대의 형태다. 우세한 문화의 문화요소가 밖에서 잇달아 들어와 재래의 문화요소를 치환하고, 전체로서는 기존 문화의 중심 부분까지도 외래의 문화요소에 맞추도록 변해간 경우이다.

세 번째의 ‘격리통합’은 겨우 통합의 형태를 이루고 있지만, 종래의 문화요소와

18) Edward H. Spicer(1961), (ed.), *Perspectives in American Indian Culture Chang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새로 들어온 문화요소가 거의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격리된 형태로 공존하는 경우이다.

네 번째의 ‘융합통합’은 종래의 문화요소와 새로 들어온 문화요소를 융합시켜서 제3의 새로운 문화요소로 바꿔 만들고 통합도가 높은 문화체계를 재형성한 상태이다.

문화접변은 문화를 창조하는 행위이다. 그 시대 그 공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알맞은 문화를 만들어내는 행위는 창조 이외의 어떤 것도 아니다. 문화요소는 문화접변을 경험하고서야 비로소 정착하는 것이며, 문화요소가 정착했을 때 그 문화는 개별적이다. 활발한 국제적 문화관계 속에서 하나하나의 문화가 개별성을 유지할 때 세계 전체에는 문화의 다양성이 유지된다. 문화의 다양화야말로 문화의 보편성이다(히라노 겐이치로, 2004).

Hammer(1995)는 일본에 있는 미국계 자회사에 근무하는 일본인 종업원을 대상으로 장기간 이문화 교육효과를 측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8년 동안 이문화 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과 이문화 교육을 받은 그룹으로 71명에 대한 연구를 했다. 교육 프로그램은 이문화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회의기법, 분쟁해결, 협상, 영어를 집중으로 사용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 결과 생산성, 영업기술 등이 향상되었으며, 특히 교육에 참가한 일본 종업원들은 교육받지 않은 종업원보다 2배 정도의 승진을 많이 했고, 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보다 조속히 해외근무에 배치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문화접촉 정도 및 교육에 따라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이문화 인지도의 개념

1) 인지도의 개념

인지란 정보를 획득하고 파지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인지의 본질은 판단이며 판단을 통해 어떤 대상은 다른 대상과 구별되고, 그것이 어떤 한 개념 또는 몇

가지 개념에 의해 특징지어지는지를 규정한다. 즉, 인지는 인식으로도 번역되며, 감각적 자료를 해석하고 이것을 기억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재생시켜 주고 사고, 추리, 문제해결 등에 이용하여 환경과 자신에 대한 인식을 획득해 가는 과정을 말한다. 인지에 관한 전통적인 해석은 지적인 과정과 산물로 한정해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견해에서 볼 때 인지에는 지식, 의식, 지능, 사고, 상상력, 창의력, 추리, 추론, 문제해결, 개념화 등과 같은 고등정신 과정에 속하는 유형의 심리적 실체들이 포함 된다¹⁹⁾.

현대의 인지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접근법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는 인간의 사고와 추론과정을 컴퓨터 체계에 비유하는 정보처리적 접근법이고, 다른 하나는 동화(assimilation)와 조절(accommodation)이라는 두 가지 기본 가정에 근거한 피아제의 인지 적응에 대한 연구법이다. 정보처리적 접근법은 인간이 지각으로부터 기명 및 문제 해결에 이르는 과정(process)을 깊이 이해하려고 하였으며, 인지 적응을 강조하는 접근법은 개인이 외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자신의 기존 지식으로 어떻게 외부환경을 해석하며, 또한 외부환경에 의하여 자신의 기존 지식을 어떻게 변형시키는지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인지발달이론의 효시인 피아제의 이론을 요약하면, 인지발달은 지각활동을 통해 인지의 구조가 변하는 것인데, 인지발달의 과정에는 일정한 단계가 있고, 각 단계별로 인지할 수 있는 공간의 유형도 각각 다르다는 것이다. 그 단계는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각 단계별 인지발달 특징을 한종하(1983)는 <표 2-3>과 같이 정리하였다. 구체적 조작기가 시작되는 초등학교 때부터 논리적 지각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가설 연역적 사고나 명제적 사고와 같은 형식적 사고는 형식적 조작기, 즉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저학년에서 시작된다.

19) 서봉연 외 1인(1995). 『인지발달』,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표 2-3> 인지발달 단계별 특성

특성 \ 단계	전조작기 (2~7세)	구체적 조작기 (7~11.5세)	형식적 조작기 (11.5~16세)
물체 인식	자기중심적 시각	논리적 시각	논리적, 기호, 추상적 표현
일반화	직관적, 환상적, 자기중심적	특수상황에 연결	특수-특수, 일반-특수, 일반-일반 사이의 왕래
결론의 정당화	환상적, 공상적	현장 관찰을 바탕으로 함	자기 관찰과 타인 관찰 결과 고려
사고 내용	자기 중심	자-타의 의견 일치·불일치 인식	사고의 논리 분석
개념 도출	객관적 지각이 좌우	논리적 지각	논리적 지각과 추상화
분류	한 변인 중심의 일차원적 분류	모든 변인을 동시에 고려, 이차원적 분류	모든 변인의 고려, 다각적 분류
인과관계	환상적, 자기중심적	구체적 사례의 관찰	논리적 추상화, 귀납과 연역
가설-연역적 사고, 명제적 사고	불가능	불가능	가능

출처: 한중하(1983). 한국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인지 발달 단계, 한국교육개발원.

인지도는 인지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미국의 학습 이론가인 Tolman(1932)에 의해 제안된 개념으로, 학습 시에 인간이나 동물이 소유하게 되는 문제 해결이나 목표 달성의 방법에 대한 정신적 표상이다. 그는 쥐의 미로 학습 연구를 통해 동물들은 미로에 대한 인지도를 학습하는 것이지, 단순히 일련의 운동이나 동작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인간의 감각기관은 환경 구성요소를 동시에 인지할 수 없으므로 강한 인상 혹은 의미를 주는 요소를 제외하고는 곧 지워져 버린다. 그렇다면 어떠한 요소들을 강하게 인지하는가의 문제를 연구하기 위하여 제안된 방법이 인지도이다. 인지도는 개인마다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Vygotsky(1962)를 중심으로 한 사회문화적 인지이론에서는 인간의 지적 능력이 문화적으로 체계화된 형태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강조한다. 즉 문화적으로 조직화된 사회적 상호작용의 양상이 개인의 심리적·인지적 발달을 가져온다고 설명하고 있다. 발달 과정이 사회적인 관계로부터

개인의 지적 기능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음을 본다.

인지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입장 사이의 논쟁으로 집약될 수 있을 것 같다. 즉 어떤 문화권에 속해 있는 개인이든 인간의 사고와 발달과정에서 기본적인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과, 문화 간에 나타나는 차이가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편이 그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문화 간의 차이라든지 문화의 한 측면과 어떤 본질적인 관련성을 규명하기 어려운 듯하다. 문화의 어떠한 특성이 어떠한 작용을 거쳐서 그러한 차이를 가져오게 하는지 설명이 어렵다는 것이다.

2) 이문화 인지도

문화는 각 개인에게 인지적, 정의적 행동의 상황을 설정해준다. 즉, 개인적, 사회적 존재의 청사진이다. 그러나 이런 청사진에 해당하는 우리 자신의 문화를 통해 실제(reality)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모두 다 객관적으로 실제는 아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이 문화를 통해 인식한 실체가 '정확한' 인식이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적 집단이 어떻게 세상을 지각하는 지를 명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문화에 따라 지각의 방식이 다르다는 사실은 명백하다.²⁰⁾

일반적으로 이문화 인식이라는 용어는 이문화 민감도와 이문화 능력과 같은 의미로 다른 문화를 수용하고 인식하는 능력을 말한다(Dodd, 1998). 여기서 문화적으로 민감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문화와 다른 사람의 문화가 다르며 문화의 차이가 의사소통 방법과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Dodd, 2007).

따라서 문화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다른 나라의 전통과 생활양식을 이해하려 하며, 이문화에 대한 선입관념이나 편견을 없애려고 노력한다.

이문화 인식에는 다른 나라 혹은 다른 문화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욕구도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이 문화적 관심은 문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호기심이다(Wang, 1999). 또한 이문화 인식은 다른 문화에 적응하려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20) 강진근·문형정(1998). 『외국어 교수 & 학습의 원리』.

다른 문화가 생산한 문화상품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욕망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화와 더불어 교육 및 정치·사회 분야에서의 최근의 추세는 이문화의 이해와 적응에 대한 인식에서 한 걸음 나아가 지구촌 인류가 공존·공영하는 문제로 까지 그 인식 범위가 확대되어 다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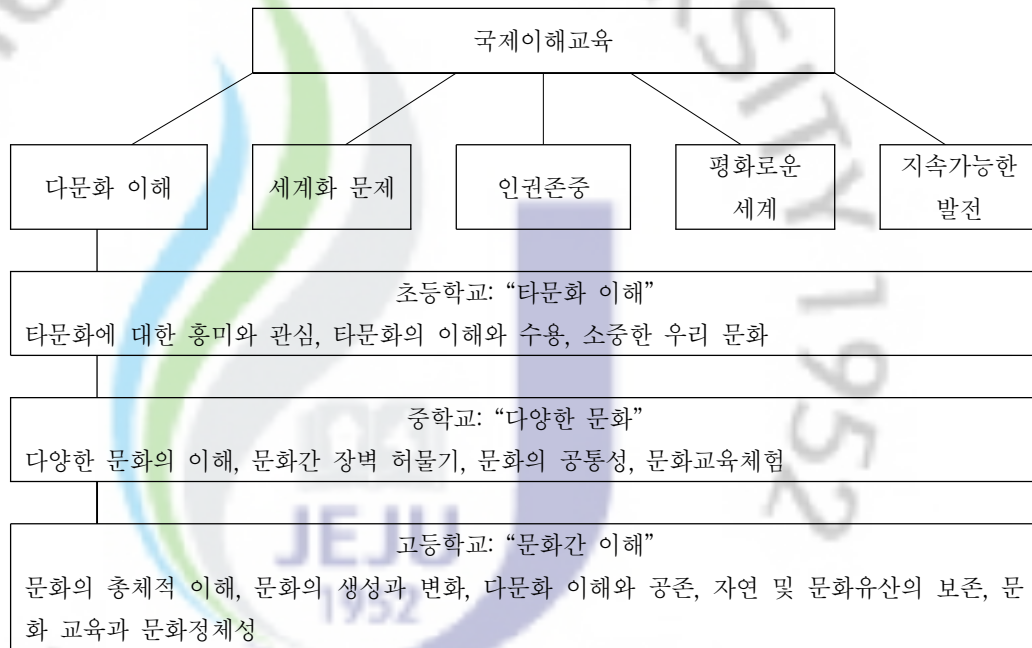
유네스코의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APCEIU: Asia-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에서도 점차 상호 의존성이 증대해가는 국제사회에서의 국제이해교육²¹⁾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국제이해교육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그림 2-2>과 같이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간단하게 소개하면 교육과정은 ① 문화간 이해 ② 세계화 문제 ③ 인권 존중 ④ 평화로운 세계 ⑤ 지속가능한 발전 등 다섯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된 교육내용은 지구촌 인류가 공존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의 상대성과 보편적 가치관을 학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중에서 ‘다문화 이해’ 교육의 경우, 초등학교에서는 타 문화에 대한 이해 및 자국 문화 알기에 역점을 두다가 중학교에 들어가면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한편 공통성을 찾아가도록 하고, 고등학교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공존, 공생을 위한 문화간 이해로 나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1) 한명희(1997: p.380-383)는 세계화 시대에의 국제이해교육 내용 목표를 ① 지구사회 가족 의식(sense of global family)과 지구촌 의식의 육성 ② 인종과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문화상대주의적(cultural relativism) 관용성의 양양 ③ 세계의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과 상호관계의 과정에 대한 이해 ④ 국제적 의사소통능력(global competency)과 체도의 육성 ⑤ 국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대한 이해, 탐구능력의 육성 ⑥ 변화하고 있는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이해 ⑦ 사회적, 개인적 문제 해결에 있어서 세계사회적 시각(global perspective)과 미래지향적 시각의 중요성 인식 ⑧ 한국문화의 세계화와 국제사회 문화 속에서의 문화주체성 필요 인식 ⑨ 지구사회체제와 각종 국제협력기구들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들고 있다.

<그림 2-2> 한국 초·중·고 사회과목 속의 다문화이해교육



출처: 이삼열(2003). 『세계화 시대의 국제이해교육』,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역, 서울: 한울아카데미. pp.16-82.

한편, 『한국어 교사 교육에서의 이문화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양민애, 2008)22)에 의하면 한국도 다문화 사회에 접어들면서23) 한국어 분야에서도 국내의 인종, 종교, 민족적 배경 등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다문화 교육’ 뿐만 아니라 ‘국제이해교육’으로서 국내외를 막론한 다른 문화에 대한 다양성 이해를 바탕으로 한 세계적인 시각이 요구되는 만큼 ‘더불어 사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문화간 의사소통의 전제가 되는 이문화 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올바른 이문화 인지의 필요성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22) 양민애(2008). 한국어 교사 교육에서의 이문화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 『이중언어학회』.

23)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통계(2007)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외국인인 연간 640만 명을 헤아리며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100만 명을 넘어섰고, 2000년 이후 국제결혼건수가 18만 건에 이른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2050년에는 체류 외국인이 5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0% 선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 인지도의 특성

인지도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 설명될 수 있다(정미애, 1996).

첫째, 인지도는 외적인 정보들이 내적으로 조직화되고 단순화된 표상이다. 이는 명확하고 질서 있는 것과 단순한 것을 등록하려 하는 지각적 경향성과 더불어 유사한 과정들이 기억의 저장고에서 계속해서 작동하리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이전에 들어와 남아있는 자극들이 점차 단순화되고 질서 잡힐 것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둘째, 인지도는 실재에 대한 복사물이 아니라 불완전하고 왜곡되는 특성을 가진다. 이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들을 개인이 자신의 내적인 상태나 특성에 맞추어 능동적으로 흡수하고 조직해 나가기 때문인데, 여기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지적, 정서적 차이와 주된 문화 환경²⁴⁾, 정보 수용시의 상황²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셋째, 개인들이 가지는 인지도는 일정하지 않다. 이는 각 개인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에 대해 그들의 내적인 상태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고, 또한 각 개인들이 상이한 물리적 혹은 사회적 환경을 가짐으로써 이들 환경이 제공하는 경험에 따라 인지도가 다르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넷째, 그러나 공통적인 인지도를 추출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인지도는 그가 속한 사회에 영향을 받으므로 각 개인들이 속한 집단은 유사한 필요성, 아이디어, 기호 등을 계층별로 공유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계속적이고 순환적인 시스템으로 개인과 공간적인 환경 사이에는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역동적인 특성을 가진다. 즉, 새로운 공간정보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인지도에 의해 해석되고, 해석된 공간정보는 다시 기존의 인지도를 변형시키게 된다(pp. 19-20).

24) 어떤 사회 내에서 정보를 받아들이거나 강화하는 것은 그 집단의 규범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

25) 동기, 일시적 기분, 정서적 상태, 신체적 상태 등

3. 외래 관광객에 대한 태도

1) 태도의 개념

태도란 사회학·심리학·사회심리학에서는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개념의 하나로 쓰이며, ‘개인이 어떤 사건이나 문제, 물건이나 사람 등에 관해서 어떤 인식과 감정 및 평가를 가지며, 거기에 입각하여 그 대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반응의 준비상태’를 가리킨다.

태도는 선천적 본능과는 달리, 직접적인 경험의 반복이나 간접적인 언어의 학습 또는 단 한 번의 강렬한 체험 등이 바탕이 되어 후천적으로 형성된다. 그리고 경험의 축적이나 사회적 영향으로 변용될 수 있는 신축성을 포함하고 있으나, 반면에 언제나 대상에 대한 가치판단이나 호응의 감정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일단 형성되면 변화하기 어렵고, 장기의 고정성·지속성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태도는 환경의 단서를 중심으로 개인의 행동을 결정짓는 목적지향성을 지닌 심리적인 내면상태로, 지식 또는 인지가 학습자의 정서적인 상태와 관계될 때 자기실현적 표출기능이 증가한다고 하겠다(최일호, 2006).

<표 2-4> 태도의 개념 및 연구내용

학자	개념 및 연구내용
박근수(2005)	어떤 대상 또는 대상들의 집합에 대해 일관적으로 호의적이거나 비호적으로 반응하려는 학습된 선유경향
고동완·정승호(2005)	특정 대상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좋고 옳음의 수준에 대한 평가로 표현되는 심리적 경향
최영희 외(2005)	일관적인 방식으로 관광에 대해 개발 지향적이거나 비지향적으로 반응하려는 경향
최승묵·김남조(2005)	관광이나 관광개발의 결과 발생 또는 발생이 예상되는 관광수준 및 유형 등의 영향에 대한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경향
Ap(1992)	어떤 대상에 대해 지속적인 선유경향이나 행동경향
Franzoi(1996)	대상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
Myers(1987)	행동의도, 감정, 그리고 신념에서 보여주는 어떤 사물 혹은 사람에 대한 호, 불호의 평가적 반응

출처: 유광민·김기완·김남조(2007). 관광개발에서 주민태도연구의 비판적 고찰: 사회교환이론과 사회표상이론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관광연구소』, 19(2), p.115.

Ap(1992)²⁶⁾의 연구에 따르면 태도는 사회적 교환에 의해 형성된다고 하였는데, 사회적 교환이라는 것은 교환 대상으로부터 보상과도 같은 혜택을 받았을 때 보상의 대가를 보답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불러일으키는 심리적 관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가장 기본적인 주된 명제는 그 특성이 호혜적이라는 것이며, 교환관계의 동기를 형성하게 하는 것이 개인과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편익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지역주민과의 상호작용은 본질적으로 균형적이지 않고 비대칭적이며, 지역주민과 영향력을 미치는 대상간의 상호작용은 불균등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태도가 긍정적, 부정적이게 된다고 하였다.

손대현·장희정(2003)은 태도란 일반적으로 행동의 선입관이나 선유경향으로, 태도란 이 세계의 어떤 상징이나 대상 혹은 측면을 호의적인 방법으로 평가하는 개인의 선입관으로 이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삶의 단계에서 특정상황 하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여주는 믿을 만한 지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매우 중요하다 하였다.

주민참여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Milbrath & Gole(1977)은 정치, 경제, 사회체제와 같은 외부환경요인과 태도, 성격, 교육정도, 연령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 태도와 신념 등의 사회적 특성을 제시하였으며, 관광학 분야에 있어서 Jurowski, Uysal & Williams(1997)는 사회교환이론을 적용하여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에 대한 평가와 교환 가치에 따른 지역주민의 관광지원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2) 문화에 대한 태도

Gardner²⁷⁾에 의하면 외국어 학습자가 학습하고 있는 영어 및 영미 문화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가 영어 학습의 성공 여부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학습하고 있는 영어 및 그 문화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갖고 있는 경우에 학습자는 높은 동기를 갖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속적으로 그 언어를 학습하게 된다. 학생들이 목표어와 문화에 대해 좋지 않았던 과거 경험으로

26) J. Ap(1992). "Understanding host residents' Perception of the impacts of tourism through social exchange theory." Texas A & M Univ.

27) R. C. Gardner(1985). *Social psychology and second language learning*, London: Edward Arnold.

인해 부정적 태도를 갖게 되면, 영어 학습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과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이유 등으로 해방 이후에 계속해서 친미정책을 추진해 왔고 세계적으로 영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의 해방이후 계속 커져 왔기 때문에 미국과 영어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라기보다 긍정적인 편이라 할 수 있다.

이효웅(2000)²⁸⁾은 우리나라 중, 고등학생들이 실제로 미국인에 대하여 매우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사회적 바탕 속에서도 각각의 학습자가 미국과 영어에 대하여 가지는 태도가 모두 같을 수는 없다. 학습자에 따라 영어 학습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계속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고 반면에 부정적인 태도도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경제포럼이 최근 발표한 ‘2011 관광 산업 경쟁력 지수’에서 한국은 전체 133개국 중 32위를 차지했으나 세부 평가항목 중 ‘외래 관광객에 대한 태도’는 최하위권인 125위에 그쳐 관광 친화성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관광업계는 국내외 관광객에 대한 ‘환대 서비스’ 실천이 시급하다는 인식에 따라 민간 차원 운동본부를 출범시키기도 하였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친절을 선물함으로써 관광 경쟁력을 높이려 한 것이다. 환대실천 범국민운동본부는 최하위권인 관광친화성 분야를 2015년까지 50위권으로 끌어올리고 내국인 여행 만족도를 8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대표적인 관광접점별 단체와 종사자들이 협력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한편, 최근 문화관광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한국을 찾는 관광객중 43.1%가 아직도 우리 국민이 불친절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아시아 관광객들의 불만은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1년 상반기에 방한한 16개국 5822명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한국 사람들이 친절하다’고 답한 외국인은 독일인의 경우 79.7%, 프랑스인은 77.9%를 차지했다. 또 영국인은 77.1%, 캐나다인은 73.2%, 미국인은 73.1%, 호주인은 71.4%를 차지해 서구권 국가 관광객은 대체로 한국인의 친절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28) 이효웅(1996). 한국 중·고등학생의 태도와 동기가 영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어교육학회』, 51(2), pp.3-34.

반면 대만인은 32.8%, 홍콩·싱가포르인은 44.5%, 일본인은 48.6%, 태국인은 48.9% 등 절반을 넘지 못했다. 아시아권 관광객에 대한 한국인의 친절도가 서구권에 비해 현저히 낮은 셈이다. 동·서양인을 통틀어 ‘한국인이 친절하다.’라고 답한 비율은 절반을 조금 넘어선 56.9%로 집계됐다. 이렇듯 한국인들이 외래 관광객을 대하는 태도는 개인·문화 혹은 각 나라별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볼 수 있다.

이렇듯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외래 관광객에 대한 태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는 어릴 적 형성된 태도 및 이문화 인지의 정도와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태도 및 인성형성에 있어 중요한 시기에 있는 초등학생들의 경우 이문화에 대해서 확고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부모, 교사, 친구 등 주변 환경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주변 환경의 역할이 중요하다. 또한 태도는 고정된 것이 아니며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긍정적인 태도 형성과 더불어 올바른 태도를 유지 할 수 있는 방안 및 노력이 필요하다.

3) 이문화에 대한 태도

‘이문화에 대한 태도(attitude toward the other cultures)’는 문화간 태도라는 용어로도 표현되며, 자신과 다른 문화 및 그 구성원에 대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인식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이해 수준을 결정하는데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²⁹⁾.

이러한 이문화에 대한 태도는 국제관광의 활성화로 인해 관광자와 현지주민, 관광자와 관광 종사자간의 접촉이 빈번해짐에 따라 관광분야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³⁰⁾.

현지주민과 관광자 관계의 연구는 관광 인류학 분야에서 처음으로 발전되었는데 이 연구 분야는 관광학에서 중심적인 이론영역들 중 하나가 되었다(Berg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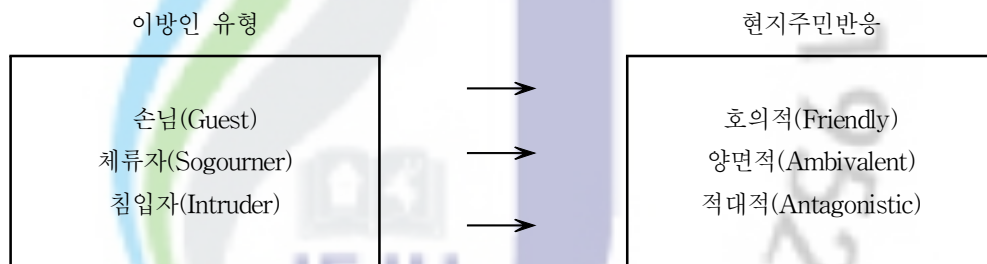
29) R. L. Wiseman, M. R. Hammer, & H. Nishida(1989). Predictors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mpet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3(3), pp.349-370.

30) 유지훈·손대현(2004). 국제관광자의 이문화적 상호작용의 통합적 모델 구축, 『한국관광학회』, 28(1), pp.205-225.

1993; Gudykunst, 1983; McNaughton, 2006; Nettekoven, 1979; Smith, 1989).

한편 Gudykunst(1983)는 현지사회에 대한 이방인의 관심과 이방인에 대한 현지인의 중심으로 현지주민들과 관광자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그림 2-3> 관광 사회학적 측면의 이방인-현지주민과의 관계



출처: W. Gudykunst(1983). Toward a Typology of Stranger-Host Relationship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7, p.405.

이문화에 대한 태도는 3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그 구조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Gudykunst et al.(1977)는 태도를 인지적인 요소와 정의적인 요소, 행태적인 요소로 나누어 사람들의 이문화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였으며, 이후 여러 연구에서도 이러한 분석 틀을 사용하여 이문화 태도의 구성요소를 밝히고 있다(Wiseman, et al., 1989; Sakuragi, 2006, 2008).

첫째, 인지적 측면에서 이문화에 대한 태도는 이문화 또는 이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대해 갖게 되는 관심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이문화에 대한 관심은 외국, 외국인, 이문화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Gudykunst et al.(1977)는 이러한 인지적 요소가 다른 문화와 그 구성원에 대해 갖게 되는 여러 행태의 유형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유형화는 이문화 적응에 필요한 요소가 되기는 하지만 고착화될 경우 상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Scott, 1965)³¹⁾.

둘째, 이문화 태도를 구성하는 정의적 요소는 이문화 또는 이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대한 개인의 정서적 반응과 관련이 있다. 즉 자신의 문화와 다른 문화에 대해

31) W. Scott.(1965). *Psychological and social correlates of international images*. In Kelman, H.(Ed.), *International behavior: A social psychological analysis*.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선호의 감정을 갖거나, 거부 또는 수용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과 관련이 있다.

Ting-Toomey(1993)³²⁾은 이러한 정서적 반응이 타문화에 대한 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문화에 대한 정서적 반응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자문화 중심적인 태도이다. 이 태도는 모든 경험의 중심에 자국문화가 있으며, 이문화를 접하게 될 때 자국문화를 방어하려는 강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타문화권 사람들과의 접촉에서 갈등을 야기한다(Bennett, 1993)³³⁾.

한편 이문화 태도의 행태적 요소는 이질 문화권의 사람들과 교류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개인적 태도와 관련이 있다. 즉 이질 문화권의 사람들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거리감을 얼마만큼 느끼고 있는가에 따라 행태적 측면에서 이문화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게 된다. Bogardus(1967)는 이를 ‘사회적 거리감’이란 용어로 표현하였고, Wiseman et al.(1989)은 사회적 거리감이 커질수록 이문화간에 ‘오해’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반면 사회적 거리감이 줄어들수록 상호 ‘이해’가 증진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문화에 대한 수용태도를 측정하는 도구는 이문화 적응에 어떠한 요인들이 중요한가를 밝히려고 한 연구 분야에서 꾸준히 개발되어 왔다(민창기, 2006)³⁴⁾.

특히 최근에는 이문화에 대한 정서적 태도에 초점을 맞추어 문화간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정서적 발전 단계를 포괄한 Hammer 등(2003)의 ‘문화간 발전 척도(IDI: Intercultural Development Inventory)’가 여러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Jackson, 2008; Sakuragi, 2006, 2008). 문화간 민감성을 측정하는 이 척도는 이문화에 대한 개인의 정서적 반응을 ‘타문화에 대한 거부 단계’, ‘자국문화 방어 단계’, ‘문화적 차이 최소화 단계’, ‘타문화 수용 및 적응’ 및 ‘통합’의 5단계로 세분화하여 이문화에 대한 개인의 정서적 반응을 측정하고 있다.

『외국어 능력과 이문화에 대한 태도의 상관관계』(민창기, 2008)에 의하면 관광전공 학생들의 이문화에 대한 태도는 ‘보통’과 ‘긍정적이다’의 중간수준으로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문화에 대한 태도는 이론 검토를 토대로 이

32) S. Ting-Toomey(1993). *Communicative resourcefulness: An identity negotiation perspective*. In R. Wiseman & J. Koester(Eds.), *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mpetence*. Newbury Park, CA: Sage.

33) J. M. Bennett(1993). *Cultural marginality: Identity issues in intercultural training*, In Piage, R. M.(Ed.), *Education for the intercultural experience*. Yarmouth, ME: Intercultural Press.

문화에 대한 관심, 이문화 수용성, 인종적 거리감, 세계의식의 4가지 요소를 통해 측정하였는데, 이 중 이문화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이문화 수용성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학생들의 이문화에 대한 관심만큼 이문화 수용태도가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관광서비스에서 핵심적 요소가 되는 문화간 차이에 대한 이해를 통해 문화간 수용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내용이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이문화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4) 태도의 구성요소

소비자 행동연구에 있어서 태도조사는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의 재정립, 광고 전략의 창출, 선호 상표의 예측, 일반적 구매성향 파악 등의 기초가 된다. 전통적 태도모형에서는 태도를 세 요소의 구성체, 즉 인지적 요소, 감정적 요소 및 행동적 요소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았다³⁵⁾.

태도의 인지적 요소는 태도대상물에 대한 개인들의 관념적 지각에 관련된 것으로서 Katz와 Stotland(1959)에 의하면 인지적 요소란 곧 태도 그 자체 및 그것과 현실세계의 다른 속성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인간들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신념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러한 인지적 요소의 전형적인 예로써 인간들이 각 종족집단과 같은 태도대상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들면서, 우리가 어떤 종족집단을 평가할 때 사용되는 여러 가지 형용사들이 곧 태도의 이러한 인지적 요소들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형용사들을 가지고 태도의 인지적 측면을 측정할 수 있다고 부연하고 있다.

감정적 요소는 정서적 요소라고도 불리워지는데, 이는 태도대상물에 대한 개인들의 좋고 나쁜 느낌이나 감정에 관한 태도의 측면을 말한다(McGuire, 1968). Himmelfarb와 Eagly(1974)에 의하면 그 방향과 강도가 다양하게 변하는 이 감정적 요소는 태도의 핵심적 측면 내지 요소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태도대상물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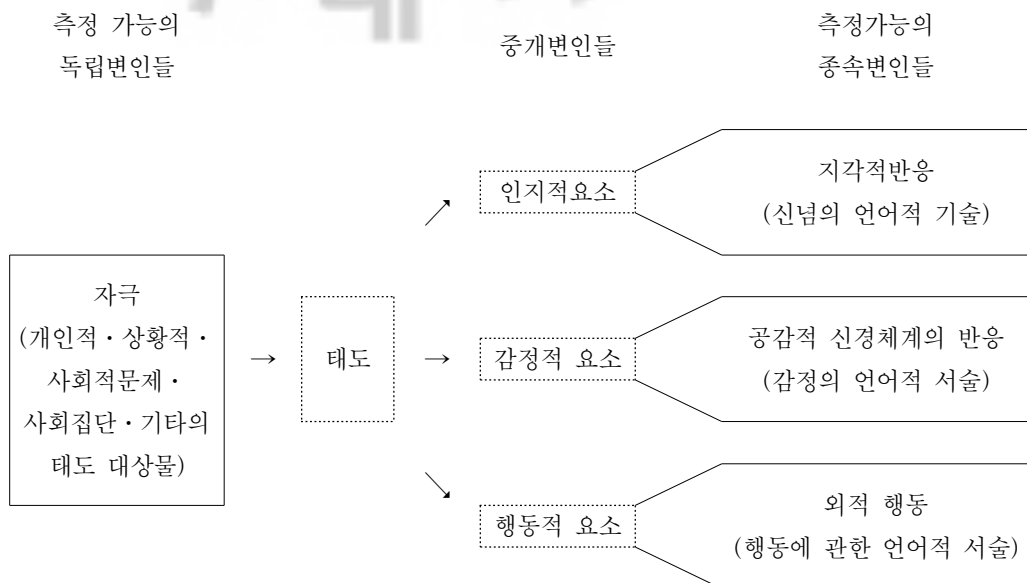
35) T. S. Robertson, J. Jelinski and S. Ward(1984). *Consumer Behavior*, Scott: Foresman and Company, pp.247-248.

한 평가를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러한 감정적 요소가 결여된다면 태도의 인지적 요소도 더 이상 태도가 될 수 없으며 그 대신 신념이나 판단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행동적 요소는 conative 요소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태도대상물에 대한 개인들의 전반적인 행동적 경향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주어진 대상물에 대하여 어떠한 행동을 하고자 하는 경향을 말한다. 그렇다고 해서 태도의 이 행동적 요소는 개인들의 행동 그 자체는 아니고 어디까지나 그러한 행동을 하려는 경향으로서의 한 태도적 측면을 지칭하는 것이다.

Rosenberg(1976)는 이들 구성요소들을 중심으로 해서 태도의 본질을 도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태도는 자극이라는 독립변인과 반응이라는 종속변인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중개변인으로써 이는 3가지 구성요소로 나누어볼 수 있으며 자극과 태도의 이들 각 요소가 합쳐서 유발시키게 되는 결과로서의 반응들은 <그림 2-4>과 같다는 것이다.

<그림 2-4> 태도의 개념과 구성요소



출처: M. J. Rosenberg(1976), Cognitive Structure and Attitudinal Affect,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3(3), pp.367-372.

과거에는 인지적 요소가 태도 형성에 있어 지배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최근에는 감정에 중점을 둔 견해가 태도분야에서 지배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태도변화를 일으키는 경험을 이루는 주요원천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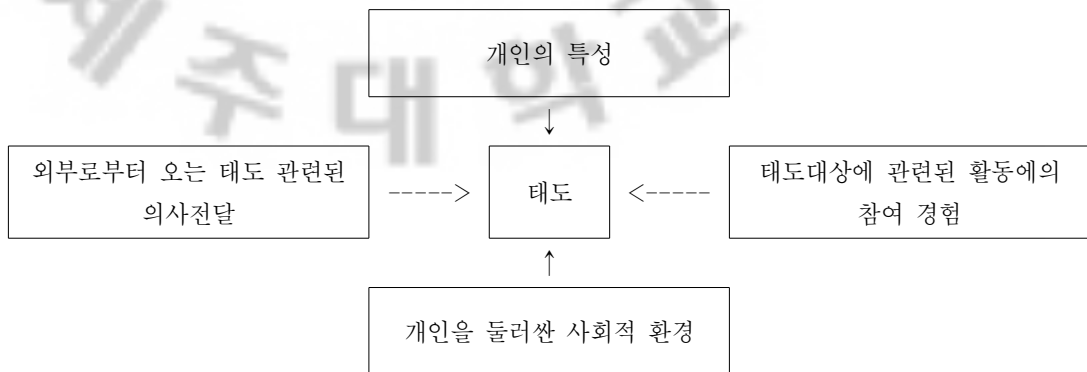
첫째, 외부로부터 변화 대상에 오는 의사전달이다. 여기에는 의사전달자, 전달 내용, 형태, 통로등이 주요원인이 된다.

둘째, 태도변화를 일으키는 주요 요인으로 취급되고 있는 태도 대상에 대한 참여 경험에서는 참가자의 적극적인 참여 외 강제적 동조가 주요인이 된다.

셋째, 개인의 태도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영향은 크게 나누어 타인이나 집단들 간의 관계와 개인이 처한 사회적 맥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넷째, 이상의 요인들은 개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하지만 이러한 영향요인들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 크게 좌우 된다³⁶⁾.

<그림 2-5>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출처: W. J. McGuire(1997). *The nature of attitudes and attitude change*, in G. Lindzey(ed),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Addison-Wesley Co., p.157.

4. 선행연구

이상용(2001)에 의하면, 영미 문화 지도에 관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교사와 아동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아무리 정확한 언어라도 그 문화

36) 최규성(2004). 관광개발에 대한 현지주민의 태도 모형화 연구, 박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대학원.

에 맞지 않게 사용한다면, 서로간의 오해를 불러 올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국제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다. 그는 문화에 알맞은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교사는 자신이 영미 문화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학생들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문제점들을 꾸준히 연구하고 실현시킬 때 비로소 성공적인 영미 문화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초등영어 외국문화 교육의 중요성과 지도 방법에 관한 연구』³⁷⁾에 의하면, 영미문화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통해 초등학생들의 영어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를 향상시킴으로써, 자기 문화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문화에 대한 지적인 호기심과 공감적 이해를 보일 수 있었다. 또한 기본적인 언어표현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영어의 언어표현과 관련된 영미의 문화적 요소를 파악하여, 초등영어 담당교사의 문화의식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여 영어교육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문화간의 차이와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문화 인식의 통찰력을 개발함으로써 개인적인 학습과 성장을 지속하여 초등학생들의 영어과 수행평가 성취도가 향상될 수 있었다고 하였다.

고주분(2002)은 외국에 다녀온 학생들의 수가 많지 않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비영어권 국가를 경험한 것으로 외국 여행에서 영어권 문화에 대한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외국에 다녀온 학생들의 의견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좀 더 뚜렷한 의견을 보이고 있었으며, 원어민 교사와 수업 경험이 있는 학생들 역시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좀 더 뚜렷한 의견을 보인다는 점에서 외국 경험과 원어민 교사와의 경험이 문화인식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김경희(2003)는 우리나라 대학교 불어불문학 교육과정은-학교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보면-의사소통 능력의 신장과 더불어 불문화의 이해를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제 교육과정, 시대에 따른 실용성보다는 심미성 중심의 교육과정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서 이러한 교육과정은 학부제를 실시함에 따라 서서히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학생들의 문화인지도를 측정해 본 결과,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약간씩

37) 고주분(2002). 초등영어 외국문화 교육의 중요성과 지도 방법에 관한 연구, 교육학석사학위 논문, 아주대학교.

올라가고, 여학생들의 인지도가 남학생들의 인지도에 비해 약간 높으나, 학교별로는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근거로 현재의 교육과정을 좀 더 실용적인 교육과정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고,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교수방법도 ‘유인물’이나 ‘설명 위주’가 아니라, ‘사진, 비디오 등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고 결론을 하면서 이러한 일련의 개선 노력이 효과를 거둔다면 학생들의 문화인지도가 좀 더 향상되리라고 보았다.

성선재(2008)는 전통문화를 활용한 역사교육 활동을 구성하고 적용하여 유아의 역사개념과 전통 문화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유아 역사개념의 하위개념인 시간개념, 변화개념, 연속개념, 과거개념 전체와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비교한 결과 전통문화를 활용한 역사교육 활동은 유아의 역사개념과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유아교육에 있어서 전통문화와 같은 유아에게 친근한 주제를 바탕으로 역사교육 활동을 전개할 때 유아의 역사개념 뿐만 아니라 전통 문화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Hermann(1980)는 조사를 통하여 원어민에 대하여 잘 인식하고 있는 학생이 부정적 태도가 적은 경향이 있는데, 이는 사회심리학적 실험에서 서로에 대한 정확하고 우호적인 정보는 적대관계를 감소시킨다는 이론과 상용한다고 말하면서 태도가 외국어 학습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황필아(1995)는 원어민, 비원어민 교사가 외국어 학습자의 태도, 동기와 성취도와의 상관관계 양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에서 미국인 영어교사로부터 지도를 받은 학생집단과 한국인 영어교사의 지도를 받은 집단을 대상으로 수업을 받기 전과 후의 양상을 서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태도와 영어 성취도 관계에 있어 원어민 교사 집단에 있어서는 모국어 국민에 대해 더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학습자의 영어 성취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나 비원어민 교사 집단에서는 학습자의 태도유형에 따른 두 집단 간의 영어 성취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면서 영어 성취도는 학습 환경에 따른 학습자의 태도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상관관계의 양상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효웅(1996)의 연구에서는 한국 중, 고등학생의 태도와 동기가 영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전반적으로 미국인과 영어 학습에 대하여 더 호의적인 태도를 지닌다는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성별과 태도의 관련성을 밝혔다.

관광분야에서의 현지주민과 관광객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주로 관광객들의 현지문화에 대한 평가(McIntosh, 2004)나 관광객과 현지주민의 사회적 관계가 관광객의 태도와 만족에 미치는 영향(Pizam et al., 2000; Thyne, Lawson & Todd, 2006), 그리고 아시아 관광객과 호주인 간의 문화적 차이와 태도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밖에도 현지주민과 관광객간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가 진행되었다(류지운, 2002; Gudykunst, 1983).

Lawson, Merrett & Williams(1996)는 현지주민 사회의 관광객에 대한 관용과 수용은 성공적인 관광목적지가 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관광객을 수용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관광객의 국적과 문화에 대한 현지주민의 태도임을 밝혔다.

Pizam(2000)은 현지주민과 관광객 사이의 사회적 관계의 강도가 높을수록 관광객은 호스트에 대해 더욱 호감을 갖게 되며, 관광객과 현지주민이 목적지에 대해 가지는 태도 역시 긍정적으로 변할 것임을 언급하였다.

Thyne, Rob & Sarah(2004)는 관광객과 현지주민 사이의 문화 차이가 현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는데 연구결과 현지주민과 관광객의 신체적, 문화적인 차이가 클수록 현지사회는 관광객을 잘 이해를 못한다는 점을 밝혔다.

한편, 호주에서 발생하는 현지주민과 관광객 사이의 문화적 차이점에 대한 연구가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되었다(Reisinger & Turner, 1998; Reisinger & Gurner, 2002). 한국인 관광객과 호주의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인식차이에 관한 이들 연구에서 문화적 차이는 관광객과 현지주민 사이에서 문제를 야기 시키거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으며, 관광 만족도와 재방문 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이문화를 어떻게,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며, 더불어 이러한 이문화 인지도는 외래 관광객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문화 간 차이로 인하여 관광지 현지에서의 서비스 제공자는 다른 문화권에서 오는 관광객의 형태를 상이하게 느끼며 또한 현지인 서비스 제공자가 관광객의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관광자의 재방문 의사와 추천의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러한 이문화 인지도 및 태도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하여 초등학생들이 이문화를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문화 인지도를 알아보고 이러한 이문화 인지도에 따라서 외래 관광객을 대하는 태도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본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초등학생들의 올바른 이문화 인지 및 긍정적인 태도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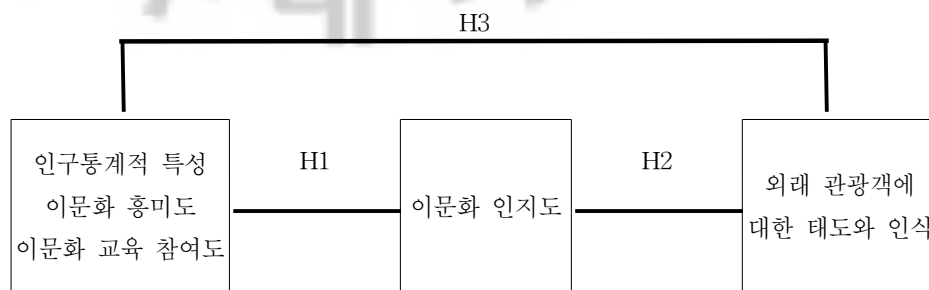
Ⅲ. 연구 설계

1. 연구모형 및 가설의 설정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독립변수인 이문화 인지도에 따라 외래 관광객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조사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관광지로 잘 알려진 서귀포시 5, 6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이문화 인지도에 따른 외래 관광객에 대한 태도와 인식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그림 3-1>의 연구모형을 도출하였다.

<그림 3-1> 연구모형



2) 가설의 설정

연구가설 I: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이문화 흥미도, 이문화 교육 참여도에 따라 이문화 인지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II: 이문화 인지도에 따라 외래 관광객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III: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이문화 흥미도, 이문화 교육 참여도에 따라 외래 관광객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 적용된 각 변수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문화 인지도

이문화 인지도는 이문화를 얼마나 이해하고 알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초등학교에서 이미 채택되어서 배우고 있는 영어교과를 중심으로 영어권 국가의 언어, 음식, 예절, 일상문화의 인지 정도를 이문화 인지도로 보고 있다.

(2) 이문화 흥미도

이문화 흥미도는 학생들이 이문화에 얼마나 흥미와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심리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3) 이문화 교육 참여도

이문화 교육 참여도는 이문화를 접한 경험 및 참여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학생들의 이문화 교육 참여도를 학습 기회성, 적극적 참여성으로 설정하였다.

(4) 외래 관광객에 대한 태도와 인식

외래 관광객에 대한 태도는 외래 관광객에 대한 필요성, 생각 그리고 마음가짐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태도로 나누었고, 외래 관광객에 대한 인식은 외래 관광객이 우리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중요성, 경제적 효과, 사회문화적 효과, 환경적 효과를 외래 관광객에 대한 인식으로 보고 있다.

2. 연구 조사설계

1) 설문지 구성과 자료의 측정

본 조사에 이용된 설문지는 설계를 위해 문헌조사와 사전테스트(Pretest)를 거쳐 작성하게 되었다. 설문지 구성은 일반적 사항을 포함하여 총 6개 항목으로 설정했다.

유사한 주제를 연구한 민태일(2002), 고주분(2002), 박정미(2006), 김상태·김덕기(1997), 이상용(2001)의 논문의 설문을 참고해 ‘인구통계적 특성’ 7개 문항, ‘이문화 흥미도’ 4문항, ‘이문화 교육 참여도’ 7문항, ‘이문화 인지도’ 8문항, ‘외래 관광객에 대한 태도와 인식’ 13문항 등 총 39문항으로 구성했다.

‘인구통계적 특성’은 성별, 학년, 외국 경험 유무, 머무른 기간, 방문 목적, 방문 국가, 부모님 직업 등 7개 문항을 명목척도를 사용해 측정했다.

‘이문화 흥미도’, ‘이문화 교육 참여도’, ‘이문화 인지도’ 그리고 ‘외래 관광객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 대한 항목은 <표 3-1>에서 보듯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항목들에서 각각 4항목, 7항목, 8항목, 13문항을 우선적으로 도출했다.

<표 3-1> 설문지의 구성

구 분	문항	설문 문항	척도	선행연구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7	1~7	명목척도	
이문화 흥미도	4	1~4	등간(Likert 5점) 척도	고주분(2002)
이문화 교육 참여도	7	1~7	등간(Likert 5점) 척도	이상용(2000) 고주분(2002)
이문화 인지도	8	1~8	등간(Likert 5점) 척도	민태일(2002) 박정미(2006)
외래 관광객에 대한 태도와 인식	13	1~13	등간(Likert 5점) 척도	김상태·김덕기 (1997)
계	39			

도출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표시하는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해 측정됐다. 또한 고객만족, 전환의도, 충성도 등도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 등으로 표시하는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해 측정했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집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정량적 접근방식으로 설문지 조사방법을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관광지가 밀집되어 외래 관광객이 많이 왕래하는 서귀포시 초등학교 중 어느 정도 인성 및 태도가 형성된 5~6학년의 초등학교로 한정하여 2011년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서귀포시 지역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일대일 개인 면접조사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조사기간 동안 총 460명이 응답한 설문지를 수집하였으나 이 가운데 몇 개의 항목에서 응답이 없거나 부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44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총 416명이 응답한 설문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실증연구의 통계적 분석방법으로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해 분석했다. 자료의 분석은 크게 조사 자료의 일반적 특성 및 기초분석을 위해 기술적 통계 분석인 빈도분석을 실시했으며, 조사항목의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크론바흐(Cronbach)의 알파(α)에 의한 신뢰도 분석을 사용했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빈도분석, T-test,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행했다.

IV. 분석결과

1. 표본의 구성과 특성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설문지 응답자의 성별 구성을 보면 남성 207명(49.8%), 여성 209명(50.2%)으로 표본이 이루어졌다.

학년별 분포는 5학년이 236명(56.7%), 6학년이 180명(43.3%)으로 나타났다.

외국에 다녀온 경험이 있는 경우가 64명(15.4%), 경험이 없는 경우가 352명(84.6%)으로 나타나 외국에 다녀온 경험이 없는 경우가 약 5.6배 높게 나타났다.

머무른 기간은 1주일 이내 27명(42.2%), 1주일 이상 24명(37.5%), 1개월 이상 13명(20.3%)으로 나타났다. 방문목적별로는 관광 49명(76.6%), 친지방문 7명(10.9%), 어학연수 2명(3.1%), 기타 6명(9.4%)으로 나타나 관광이 76.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모님 직업별로는 아버지가 공무원 87명(22.1%), 자영업 60명(15.2%), 농림어업 56명(14.2%), 서비스업 119명(30.2%), 기타 72명(18.3%)으로 나타나 서비스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는 공무원 63명(16.6%), 자영업 66명(17.4%), 농림어업 36명(9.5%), 서비스업 136명(35.9%), 기타 78명(20.6%)으로 나타나 아버지, 어머니 직업 모두 서비스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 분		빈도(명)	비율(%)	
성 별	남성	207	49.8	
	여성	209	50.2	
학 년	5학년	236	56.7	
	6학년	180	43.3	
외국 경험	유	64	15.4	
	무	352	84.6	
머무른 기간	1주일 이내	27	42.2	
	1주일 이상	24	37.5	
	1개월 이상	13	20.3	
방문 목적	관광	49	76.6	
	친지방문	7	10.9	
	어학연수	2	3.1	
	기타	6	9.4	
부모님 직업	아버지	공무원	87	22.1
		자영업	60	15.2
		농림어업	56	14.2
		서비스업	119	30.2
		기타	72	18.3
	어머니	공무원	63	16.6
		자영업	66	17.4
		농림어업	36	9.5
		서비스업	136	35.9
		기타	78	20.6
계		416	100	

<표 4-2>를 보면 외국에 다녀온 경험이 있는 경우 외국 문화 인지도가 높음이 41명(67.2%), 낮음이 20명(32.8%)으로 나타났고, 외국에 다녀온 경험이 없는 경우 높음이 158명(46.1%), 낮음이 185명(53.9%)으로 나타났다.

외국에 다녀온 경험이 있는 경우 이문화 인지도가 ‘낮다’ 보다 ‘높다’가 약 2배 더 많은 수치로 외국에 다녀온 경험이 있는 학생이 이문화 인지도에 많은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에 다녀온 경험이 없는 경우 ‘낮다’와 ‘높다’가 53.9%, 46.1%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서귀포시 지역 특성 상 외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수의 비교보다 비율로 비교하여 보았을 때 외국 경험이 있는 경우 이문화 인지도의 높음 비율이 외국 경험이 없는 경우 이문화 인지도의 높음 비율보다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4-2> 외국 경험에 따른 이문화 인지도 차이

구분		이문화 인지도		전체 (%)	x ² p값
		낮음	높음		
해외 경험	없음	185(53.9%)	158(46.1%)	343 (100.0)	9.268
	있음	20(32.8%)	41(67.2%)	61 (100.0)	.003

2. 측정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1)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복수 문항들로 측정된 변수들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척도별로 탐색적 요인분석 통계 기법을 이용해 척도순화를 수행했다. 신뢰성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재검사법(Test-Retest Method), 복수양식법(Parallel-Forms Technique), 반분법(Split-Half Method), 내적일관성(Internal Consistency Method) 등이 있는데 이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내적일관성에 의한 방법이다³⁸⁾.

내적일관성은 하나의 구조를 여러 항목으로 측정했을 때 항목들이 일관성 혹은 동질성을 갖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내적일관성은 Cronbach의 alpha 계수를 이용하여 항목들 간의 상관관계로써 평가되는데, 항목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을수

38) 채서일(2007). 『사회과학조사방법론』, 서울: 비엠엔북스, pp.179-182.

록 내적일관성이 높다.

Cronbach의 alpha 계수는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0.6 이상이면 수용할 만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0.6보다 작으면 내적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이 경우 Cronbach의 alpha 계수의 크기를 저해하는 항목들을 제거함으로써 전체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³⁹⁾.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동일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크론바흐 알파계수 (Cronbach's alpha)를 이용한 내적일관성 검증을 실시했다.

요인분석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Kaiser(1970)의 표본 적합성을 이용했는데, 이를 통해 변수들 내부의 상관관계 정도를 살펴보았다. 표본 적합성이 0.8 이상을 나타내면 상당히 좋으며, 0.4 미만의 값을 보이면 요인분석을 실행하기에는 어려운 값으로 간주하고 있다.

순화과정은 개별 측정척도들의 단일 차원성을 전제로 하는 측정척도를 검토했고, 요인분석을 통하여 고유값이 1 이상이 되는 변수를 파악해, 요인적재치가 0.4 이상 중복 적재된 경우와 공통성(Community)이 0.4 이하인 항목을 제거하여 신뢰성을 검토했다. 또한, 이들 항목 중 크론바흐 알파계수가 0.6 이상이 되는 항목을 사용했다.

(1-1) 이문화 흥미도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이문화 흥미도에 대한 요소는 측정된 3개의 항목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전체 신뢰도 분석 후 2번의 요인분석을 반복 실행했다. “외국 영화를 좋아한다.” 항목은 공통성 0.4보다 낮게 나타나 제거 되었다.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본 적합도를 검증하는 KMO값이 .668, Bartlett의 단위행렬검증(Test of Sphericity) 값이 494.545(sig=.00)으로 유의했다.

이것은 변수들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은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며,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요인분석이 가능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39) 이학식·임지훈(2007). 『SPSS 12.0메뉴얼』, 파주: 법문사, pp.122-123.

<표 4-3> 이문화 흥미도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결과

요 인		평균	적재치	공통성	고유값 (분산%)	신뢰계수
이문화 흥미도	이문화에 흥미와 관심이 있다.	3.33	.909	.826	2.210 (73.664%)	.820
	외국어 수업이 재미있다.	3.29	.873	.762		
	이문화에 흥미와 관심이 있다.	3.50	.789	.623		
KMO= .668		Chi-Square=494.545	sig= .000	총 분산설명력=73.664%		

(1-2) 이문화 교육 참여도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이문화 교육 참여도에 대한 요소는 측정된 7개의 항목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전체 신뢰도 분석 후 2번의 요인분석을 반복 실행했다.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본 적합도를 검증하는 KMO값이 .826, Bartlett의 단위행렬 검증(Test of Sphericity) 값이 889.282 (sig=.00)으로 유의했다.

이것은 변수들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은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며,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요인분석이 가능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표 4-4> 이문화 교육 참여도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결과

요 인		평균	적재치	공통성	고유값 (분산%)	신뢰 계수
학습 기회성	학교 영어 수업시간에 영어권 문화에 대해 배운 적이 있다.	3.00	.776	.660	3.398 (48.549%)	.767
	학교 영어 수업 시간에 이문화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듣는다.	3.49	.753	.602		
	학교 외국어 수업시간 외에 이문화에 대해 배운 기회가 있다.	3.12	.713	.647		
	학교 밖에서 영어권 문화에 대해 배운 적이 있다.	3.49	.700	.502		
적극적 참여성	외국어 학습을 매일 꾸준히 하고 있다.	3.44	.824	.729	1.003 (14.333%)	.734
	외국어로 된 동화책을 본다.	2.44	.805	.665		
	외국어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3.48	.698	.597		
KMO= .826		Chi-Square=889.282	sig= .000	총 분산설명력=62.882%		

(1-3) 이문화 인지도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이문화 인지도에 대한 요소는 측정된 5개의 항목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전체 신뢰도 분석 후 2번의 요인분석을 반복 실행했다. “영어권 국가의 사람들은 이름을 말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성을 먼저 말한다.” 항목은 적재치 0.5보다 낮게 나타나 제거되었다. “외국 사람들은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의 눈을 쳐다본다.”, “다른 나라의 음식에 대하여 알고 있다.” 항목은 총 분산 설명력 60%보다 낮게 나타나 공통성이 가장 낮은 두 항목을 제거 하였다.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본 적합도를 검증하는 KMO값이 .825, Bartlett의 단위행렬검증(Test of Sphericity) 값이 914.687(sig=.00)으로 유의했다.

이것은 변수들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은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며,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요인분석이 가능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표 4-5> 이문화 인지도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결과

요 인		평균	적재치	공통성	고유값 (분산%)	신뢰 계수
이문화 인지도	외국인들의 행동이나 제스처를 이해 할 수 있다.	2.71	.875	.765		.850
	외국인들의 일상회화를 이해할 수 있다.	2.75	.867	.752		
	이문화와 한국문화의 차이에 대하여 이해 할 수 있다.	3.08	.790	.624	3.156 (63.111%)	
	외국인을 직접 만나 영어로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3.22	.766	.587		
	외국의 문화에 대하여 알고 있다.	2.75	.654	.428		
KMO= .825		Chi-Square=914.687	sig= .000	총 분산설명력=63.111%		

(1-4) 외래 관광객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외래 관광객에 대한 태도에 대한 요소는 측정된 13개의 항목을 대상으로 요인 분석을 실시했다. 전체 신뢰도 분석 후 2번의 요인분석을 반복 실행했다.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본 적합도를 검증하는 KMO값이 .901, Bartlett의 단위행렬검증(Test of Sphericity) 값이 2578.674(sig=.00)으로 유의했다.

이것은 변수들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은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며,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요인분석이 가능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표 4-6> 외래 관광객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결과

	요 인	평균	적재치	공통성	고유값 (분산%)	신뢰계 수
사회적 기여도	외래 관광객을 통해 우리 지역이 다른 국가에 알려지는 효과가 있다	3.84	.768	.663	5.989 (46.068%)	.889
	외래 관광객의 증가는 우리 지역의 경제를 좋게 만든다	3.68	.750	.692		
	외래 관광객은 우리 지역의 경제적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3.54	.731	.583		
	우리 지역에 관광산업은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3.74	.718	.608		
	외래 관광객을 통해 우리 지역 내 생산품의 소비가 늘어난다	3.53	.714	.659		
	외래 관광객 증가는 우리 지역 내에 여러 가지 관광지들이 늘어나게 한다	3.58	.678	.694		
	외래 관광객은 우리 지역의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위해 필요하다	3.48	.671	.639		
적극성	외래 관광객에게 먼저 인사를 할 마음이 있다	3.42	.825	.703	1.676 (12.895%)	.840
	외래 관광객에게 먼저 인사를 하는 등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3.47	.797	.707		
	외국어로 길을 물어보는 관광객에게 언어소통이 힘들어도 적극적으로 안내할 생각이 있다	3.24	.786	.683		
	나는 외래 관광객에 대해 친절하게 대하려 는 마음을 갖고 있다	3.70	.725	.654		
호의성	외래 관광객의 증가로 우리 지역이 깨끗해지는 효과가 있다	2.95	.849	.762	1.077 (8.288%)	.645
	외래 관광객을 통해 우리 지역 내 일자리가 늘어나게 한다	3.25	.683	.695		
KMO= .901 Chi-Square=2578.674 sig= .000		총 분산설명력=67.251%				

3. 연구가설 검증

1) 연구가설 1의 검증

연구가설 I: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이문화 흥미도, 이문화 교육 참여도에 따라 이문화 인지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이문화 인지도에 대한 차이는 <표 4-7>에서 나타나듯이 성별, 외국에 다녀온 경험, 부모님 직업에 따른 이문화 인지도는 유의수준 0.01의 차이를 보였다. 반면 학년, 머무른 기간, 방문목적에 따른 이문화 인지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은 이문화 인지도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외국여행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경험이 있는 경우가 이문화를 더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직업에서는 자영업이나 농림어업 보다는 공무원, 서비스업에서 높은 인지가 나타났다.

특히 외국경험이 있는 학생은 이문화에 대해 더 유연한 자세에서 이해하는 것으로 평균차이가 다른 항목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외국에 갈 때 대부분 부모님과 같이 관광을 함으로써 의사결정권자가 부모에 있기 때문에 저 관여자인 학생들은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입장이므로 머무른 기간이나 방문 목적에는 이문화 인지도의 차이가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4-7>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이문화 인지도의 차이 분석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F값	유의확률		
이문화 인지도	성별	남	2.69	.885	-4.709	.000***	
		여	3.11	.940			
	학년	5학년	2.94	.989	.906	.366	
		6학년	2.85	.862			
	외국 경험	유	3.47	1.037	5.315	.000***	
		무	2.80	.881			
	머무른 기간	1주일 이내	3.37	.986	.273	.762	
		1주일 이상	3.49	.896			
		1개월 이상	3.63	1.383			
	방문 목적	관 광	3.55	.997	1.012	.394	
		친지방문	2.94	1.050			
		어학연수	4.10	.141			
		기 타	3.27	1.406			
	부모님 직업	아버지	공무원	2.85(a)	.967	4.448	.002***
			자영업	2.92(ab)	.978		
농림어업			2.72(a)	.913			
서비스업			3.19(b)	.876			
어머니		기타	2.66(a)	.928	6.065	.000***	
		공무원	3.12(b)	.897			
		자영업	2.54(a)	.985			
		농림어업	2.54(a)	.845			
	서비스업	3.07(b)	.819				
	기타	2.97(b)	1.030				

주1) *** p<0.01

주2) Duncan's 다중검증방법을 사후검증으로 사용함 (a>b의 각 부집단 형성은 0.05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이문화 흥미도, 이문화 교육 참여도에 따른 이문화 인지도 차이는 <표 4-8>에 서 나타나듯이 이문화 흥미도, 학습 기회성, 적극적 참여성에 따른 이문화 인지도는 유의수준 0.01의 차이를 보였다. 이 결과는 이문화 흥미도, 학습 기회성, 적극적 참여성 특성이 높을수록 이문화를 높게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세 가지 요인 모두 비교적 높은 T값을 보였으며 이는 이문화 흥미도, 이문화 교육 참여도와 이문화 인지도 간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8> 이문화 흥미도, 이문화 교육 참여도에 따른 이문화 인지도 차이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이문화 인지도	이문화 흥미도	낮음	2.56	.822	-8.794	.000***
		높음	3.32	.905		
	학습 기회성	낮음	2.43	.732	-11.418	.000***
		높음	3.36	.883		
적극적 참여성	낮음	2.65	.837	-7.040	.000***	
	높음	3.29	.955			

주1) *** p<0.01

2) 연구가설 2의 검증

연구가설 II: 이문화 인지도에 따라 외래 관광객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문화 인지도에 따른 외래 관광객에 대한 태도와 인식의 차이는 <표 4-9>에 서 나타나듯이 인지도에 따른 사회적 기여도, 적극성, 호의성은 유의수준 0.01의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문화 인지도가 낮을 때 보다 높을 때 사회적 기여도, 적극성, 호의성을 높게 인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이 초등학생인 점으로 미뤄보아 이문화 인지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외래 관광객에 대해 적극적이고 호의적인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이문화 인지도에 따른 외래 관광객에 대한 태도와 인식 차이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사회적 기여도	이문화 인지도	낮음	3.30	.747	-9.168	.000***
		높음	3.96	.662		
적극성	이문화 인지도	낮음	3.03	.863	-10.715	.000***
		높음	3.92	.800		
호의성	이문화 인지도	낮음	2.78	.889	-7.740	.000***
		높음	3.45	.851		

주1) *** p<0.01

3) 연구가설 3의 검증

연구가설 III: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이문화 흥미도, 이문화 교육 참여도에 따라 외래 관광객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기여도에 대한 차이는 성별, 외국에 다녀온 경험에 따른 사회적 기여도에서 유의 수준 0.01의 차이를 보였다. 부모님 직업에 따른 차이는 유의수준 0.05의 차이를 보였다. 반면 학년, 머무른 기간, 방문목적에 따른 사회적 기여도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은 사회적 기여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외국여행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경험이 있는 경우가 사회적 기여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직업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모두 서비스업에서 높은 사회적 기여도가 나타났다.

외국경험 유무에 따라서는 유의적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방문 기간과 목적의 경우 표본의 특성상 외국여행 의사결정에 저 관여자인 것으로 이 후 가설에도 마찬가지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외래 관광객에 대한 태도와 인식의 차이 분석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F값	유의확률		
사회적 기여도	성별	남	3.51	.778	-3.226	.001***	
		여	3.76	.747			
	학년	5학년	3.63	.811	-.064	.949	
		6학년	3.64	.719			
	외국 경험	유	3.90	.751	2.996	.003***	
		무	3.58	.766			
	머무른 기간	1주일 이내	3.98	.587	.275	.761	
		1주일 이상	3.83	.837			
		1개월 이상	3.86	.924			
	방문 목적	관 광	3.95	.752	.537	.659	
		친지방문	3.69	.470			
		어학연수	4.14	.202			
		기 타	3.64	1.102			
	부모님 직업	아버지	공무원	3.59(ab)	.783	2.398	.050**
			자영업	3.46(a)	.795		
			농림어업	3.59(ab)	.717		
			서비스업	3.80(b)	.706		
			기타	3.61(ab)	.767		
어머니		공무원	3.64(ab)	.698	2.582	.037**	
		자영업	3.40(a)	.835			
		농림어업	3.56(ab)	.728			
		서비스업	3.74(b)	.759			
		기타	3.72(b)	.718			

주1) *** p<0.01

주2) Duncan's 다중검증방법을 사후검증으로 사용함 (a>b의 각 부집단 형성은 0.05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적극성에 대한 차이는 성별, 외국에 다녀온 경험, 아버지 직업에 따른 적극성은 유의수준 0.01의 차이를 보였다. 반면 학년, 머무른 기간, 방문목적, 어머니 직업에 따른 적극성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가정에서 더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은 적극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외국여행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경험이 있는 경우가 적극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 직업에서는 서비스업에서 가장 높은 적극성이 나타났다.

<표 4-11>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외래 관광객에 대한 태도와 인식의 차이 분석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F값	유의확률		
적극성	성별	남	3.29	.932	-3.903	.000***	
		여	3.65	.926			
	학년	5학년	3.48	.967	.035	.972	
		6학년	3.47	.918			
	외국 경험	유	3.79	.877	2.926	.004***	
		무	3.42	.946			
	머무른 기간	1주일 이내	3.80	.815	.078	.925	
		1주일 이상	3.75	.905			
		1개월 이상	3.88	1.025			
	방문 목적	관 광	3.79	.880	.226	.878	
		친지방문	3.79	.699			
		어학연수	4.50				
		기 타	3.71	1.188			
	부모님 직업	아버지	공무원	3.34(ab)	.899	3.636	.006***
			자영업	3.42(abc)	.942		
			농림어업	3.64(bc)	.909		
서비스업			3.70(c)	.857			
기타		3.25(a)	1.071				
어머니		공무원	3.51	.906	.862	.487	
		자영업	3.31	1.081			
		농림어업	3.66	.907			
	서비스업	3.50	.944				
기타	3.51	.894					

주1) *** p<0.01

주2) Duncan's 다중검증방법을 사후검증으로 사용함 (a<b<c, a=.05)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호의성에 대한 차이는 외국에 다녀온 경험, 부모님 직업에 따른 호의성에서 유의수준 0.01의 차이를 보였다. 학년에 따른 차이는 유의수준 0.05의 차이를 보였다. 반면 성별, 머무른 기간, 방문목적에 따른 호의성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학년보다 6학년이 높은 호의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외국여행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경험이 있는 경우가 호의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직업에서는 아버지 직업의 경우 서비스업에서 가장 높은 호의성이 나타났고, 어머니 직업은 기타를 제외한 공무원에서 가장 높은 호의성이 나타났다.

<표 4-12>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외래 관광객에 대한 태도와 인식의 차이 분석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F값	유의확률	
호의성	성별	남	3.04	.964	-1.399	.163
		여	3.17	.892		
	학년	5학년	3.02	.956	-2.053	.041**
		6학년	3.21	.885		
	외국 경험	유	3.55	1.031	3.775	.000***
		무	3.03	.889		
	머무른 기 간	1주일 이내	3.60	1.049	.486	.617
		1주일 이상	3.40	.932		
		1개월 이상	3.73	1.201		
	방문 목적	관 광	3.58	1.033	.334	.800
		친지방문	3.43	.932		
		어학연수	4.00	.000		
		기 타	3.25	1.370		
	부모님 직 업	아버지	공무원	3.02(a)	.854	5.818
자영업			3.07(a)	.890		
농림어업			2.75(a)	1.058		
서비스업			3.41(b)	.887		
어머니		기타	2.97(a)	.926	4.882	.001***
		공무원	3.21(bc)	.901		
		자영업	2.96(b)	.890		
		농림어업	2.58(a)	.898		
	서비스업	3.16(bc)	.947			
	기타	3.33(c)	.900			

주1) *** p<0.01

주2) Duncan's 다중검증방법을 사후검증으로 사용함 (a<b<c, a=.05)

이문화 흥미도, 이문화 교육 참여도에 따른 사회적 기여도 차이는 <표 4-13>에서 나타나듯이 이문화 흥미도, 학습 기회성, 적극적 참여성에 따른 사회적 기여도는 유의수준 0.01의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문화 흥미도, 학습 기회성, 적극적 참여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기여도를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 이문화 흥미도, 이문화 교육 참여도에 따른 외래 관광객에 대한 태도와 인식 차이 분석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사회적 기여도	이문화 흥미도	낮음	3.41	.750	-6.568	.000***
		높음	3.90	.716		
	학습 기회성	낮음	3.27	.711	-10.566	.000***
		높음	4.00	.659		
	적극적 참여성	낮음	3.24	.617	-16.775	.000***
		높음	4.25	.554		

주1) *** p<0.01

이문화 흥미도, 이문화 교육 참여도에 따른 적극성 차이는 <표 4-14>에서 나타나듯이 이문화 흥미도, 학습 기회성, 적극적 참여성에 따른 사회적 기여도는 유의수준 0.01의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문화 흥미도, 학습 기회성, 적극적 참여성이 높을수록 적극성을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 이문화 흥미도, 이문화 교육 참여도에 따른 외래 관광객에 대한 태도와 인식 차이 분석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적극성	이문화 흥미도	낮음	3.03	.857	-11.947	.000***
		높음	4.00	.764		
	학습 기회성	낮음	2.70	.550	-29.497	.000***
		높음	4.25	.519		
	적극적 참여성	낮음	3.16	.855	-9.107	.000***
		높음	3.95	.874		

주1) *** p<0.01

이문화 흥미도, 이문화 교육 참여도에 따른 호의성 차이는 <표 4-15>에서 나타나듯이 이문화 흥미도, 학습 기회성, 적극적 참여성에 따른 호의성은 유의수준 0.01의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문화 흥미도, 학습 기회성, 적극적 참여성이 높을수록 호의성을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5> 이문화 흥미도, 이문화 교육 참여도에 따른 외래 관광객에 대한 태도와 인식 차이 분석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호의성	이문화 흥미도	낮음	2.95	.867	-3.788	.000***
		높음	3.30	.975		
	학습 기회성	낮음	2.88	.803	-5.029	.000***
		높음	3.33	1.000		
	적극적 참여성	낮음	2.90	.857	-5.670	.000***
		높음	3.42	.954		

주1) *** p<0.01

4. 분석결과 요약

<표 4-16> 연구가설 검증의 요약결과

가설	관계	연구가설 채택여부	요약결과의 해석
가설 1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이문화 흥미도, 이문화 교육 참여도와 이문화 인지도의 차이	부분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이문화 인지도 차이는 성별, 외국에 다녀온 경험, 부모님 직업에 따른 이문화 인지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임. 이문화 흥미도, 이문화 교육 참여도에 따른 이문화 인지도 차이는 이문화 흥미도, 학습 기회성, 적극적 참여성에 따른 이문화 인지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임.
가설 2	이문화 인지도와 외래 관광객에 대한 태도와 인식의 차이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문화 인지도에 따른 외래 관광객에 대한 태도와 인식 차이는 이문화 인지도에 따른 사회적 기여도, 적극성, 호의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임.
가설 3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이문화 흥미도, 이문화 교육 참여도와 외래 관광객에 대한 태도와 인식의 차이	부분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기여도에 대한 차이는 성별, 외국에 다녀온 경험, 부모님 직업에 따른 차이는 유의한 차이를 보임.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적극성에 대한 차이는 성별, 외국에 다녀온 경험, 아버지 직업에 따른 적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임.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호의성에 대한 차이는 외국에 다녀온 경험, 부모님 직업,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임. 이문화 흥미도, 이문화 교육 참여도에 따른 사회적 기여도에 대한 차이는 이문화 흥미도, 학습 기회성, 적극적 참여성의 특성에 따른 사회적 기여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임. 이문화 흥미도, 이문화 교육 참여도에 따른 적극성에 대한 차이는 이문화 흥미도, 학습 기회성, 적극적 참여성의 특성에 따른 적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임. 이문화 흥미도, 이문화 교육 참여도에 따른 호의성에 대한 차이는 이문화 흥미도, 학습 기회성, 적극적 참여성 특성에 따른 호의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임.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이문화 인지도를 알아보고 이러한 이문화 인지도와 초등학생이 외래 관광객을 대하는 태도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초등학생의 인구통계적 특성, 이문화 흥미도, 이문화 교육 참여도에 따라 이문화 인지도와 외래 관광객에 대한 태도에 대한 차이와 이문화 인지도에 따른 외래 관광객에 대한 태도와 인식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실증분석을 했다.

이를 위하여 이문화 인지도, 외래 관광객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구분하여 이들 이문화 인지도가 외래 관광객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했다. 그리고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이문화 흥미도, 이문화 교육 참여도가 이문화 인지도와 외래 관광객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 미치는 차이를 분석했다. 그 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 외국에 다녀온 경험, 부모님 직업에 따른 이문화 인지도는 유의수준 0.01의 차이를 보였다. 반면 학년, 머무른 기간, 방문목적에 따른 이문화 인지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문화 흥미도, 이문화 교육 참여도에 따른 이문화 인지도 차이는 이문화 흥미도, 학습 기회성, 적극적 참여성에 따른 이문화 인지도는 유의수준 0.01의 차이를 보였다.

둘째, 이문화 인지도에 따른 외래 관광객에 대한 태도와 인식의 차이는 이문화 인지도에 따른 사회적 기여도, 적극성, 호의성에서 유의수준 0.01의 차이를 보였다.

셋째,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기여도에 대한 차이는 성별, 외국에 다녀온 경험에 따른 사회적 기여도에서 유의수준 0.01의 차이를 보였다. 부모님 직업에 따른 차이는 유의수준 0.05의 차이를 보였다. 반면 학년, 머무른 기간, 방문목적에 따른 외래 관광객에 대한 사회적 기여도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적극성에 대한 차이는 성별, 외국에 다녀온 경험, 아버지 직업에 따른 적극성에서 유의수준 0.01의 차이를 보였다. 반면 학년, 머무른 기간, 방문목적, 어머니 직업에 따른 적극성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호의성에 대한 차이는 외국에 다녀온 경험, 부

모임 직업에 따른 호의성에서 유의수준 0.01의 차이를 보였다. 학년에 따른 차이는 유의수준 0.05의 차이를 보였다. 반면 성별, 머무른 기간, 방문목적에 따른 호의성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문화 흥미도, 이문화 교육 참여도에 따른 사회적 기여도에 대한 차이는 이문화 흥미도, 학습 기회성, 적극적 참여성에 따른 사회적 기여도에서 유의수준 0.01의 차이를 보였다.

이문화 흥미도, 이문화 교육 참여도에 따른 적극성에 대한 차이는 이문화 흥미도, 학습 기회성, 적극적 참여성에 따른 사회적 기여도에서 유의수준 0.01의 차이를 보였다.

이문화 이문화 흥미도, 이문화 교육 참여도에 따른 호의성에 대한 차이는 이문화 흥미도, 학습 기회성, 적극적 참여성에 따른 호의성에서 유의수준 0.01의 차이를 보였다.

한편 외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질문에서는 <표 4-17>에서와 같이 학생들이 외국을 방문하여 그 나라의 다양한 특색을 직접 경험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배울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4-17> 외국 방문 학생 대상 심층질문

구분	심층 질문	비고
이문화에 대한 생각	<p>‘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달리 신발을 신고 집에 들어가고, 밥을 먹지 않고 햄버거 등을 즐겨먹음’, ‘밥을 먹을 때 그릇을 들고 먹고, 같은 상에서 같이 안 먹고, 자신 앞에 따로 상이 있어서 따로 먹는 것이 신기함’, ‘교통질서가 철저함’, ‘유럽대륙은 여가 시설 등이 매우 발전해있고 개방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 동남아시아는 보통 다 불교를 믿으며 우리와 문화가 비슷하다. 미국은 유럽과 같이 개방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p>	
이문화에 대한 태도	<p>‘나는 외국(일본) 문화가 좋다고 생각한다. 일본 문화가 발달해서 일본이 선진국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긍정적이다. 그 사람들의 예의성과 친절함이 너무 좋았다. 정말 사람들이 친절하고 자상하였다. 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너무 무섭게 생겨서 조금 여행이 무서웠다.’</p>	
느낀점	<p>‘말은 안통하지만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이고 마음만큼은 우리와 같다는 것을 알았다.’, ‘캄보디아에서는 우리나라 보다 못 사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우리는 음식을 먹기 싫어서 남기지만 캄보디아에서는 없어서 못 먹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음식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니 보람찬 날이었다. 그리고 뿌듯했다.’, ‘중국의 문화재들이 화려하고 역사가 담겨서 기억에 제일 남았다.’, ‘외국에 갔다 와서는 더욱 더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더욱더 좋은 곳에 가고 싶다’, ‘우리나라와 다른 것이 신기하고 건물이 지어진 형식도 신기하고 과학적이었다. 그리고 가게에서 무엇인가를 살 때 말은 안 통했지만 영어를 통해 말이 통해서 영어가 정말 널리 알려져 있는 언어라는 걸 알았다. 그리고 음식의 간 또는 음식이 우리나라와 전혀 달라서 입맛이 갑자기 튀틀린 느낌이 났다. 그리고 너무 즐겁고 새로운 문화를 배워 재미있었다.’, ‘캐나다에 갔다 와서 한국과 비교가 됐다. 그곳은 한국보다 훨씬 깨끗했고 사람들도 친절했다. 1년에 한 개씩은 특별한 동전이 나왔다. 예를 들면 밴쿠버 동계 올림픽이 있었던 해에는 25센트에 동계 올림픽 종목 중 1개를 새겨 놓았다. 또 우리나라보다 과자나 정크푸드가 더 많고 특이한 것이 많아서 정말 우리보다 과자종류도 발전한 나라라고 느꼈다. 다음에도 또 가고 싶다. 태국에 갔다 와서는 오히려 한국이 더 좋았다. 태국의 공기는 안좋아서 택시에 탈 때도 창문을 못 열 정도였다. 또 물가가 싸서 똑같은 물건을 한국보다 더 싸게 살 수 있었고 밤에만 여는 시장에는 파는 것도 많아서 좋았고, 아직도 왕이 있는 나라라서 더 신기했다. 음식도 맛이 없는 편은 아니었다.’, ‘우리나라도 관광 산업이 더 발달했으면 좋겠다.’, ‘다른 나라의 문화나 언어를 배울 수 있어 좋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명소를 둘러볼 수 있어 좋다고 생각한다.’</p>	

이렇듯 학생들이 외국을 경험하면서 각 나라의 언어, 종교, 가치, 교육, 사회조직, 자연환경 등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배웠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 외국에 다녀온 학생들의 수가 많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외국에 다녀온 학생들의 의견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 보다 좀 더 뚜렷한 의견을 보이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외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경우 이문화 인지도가 높았으며 이문화 인지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외래 관광객에 대한 사회적 기여도, 적극성, 호의성의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학생들이 이문화의 인지도에 따라서 외래 관광객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 있었다.

V. 결론

1.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오늘날 세계는 사회·경제·정치·문화 등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교류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문화를 접하게 된다. 이러한 이문화 접촉을 통해 문화는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발전 혹은 쇠퇴해 나간다. 더불어 사람들이 이문화에 대해 느끼는 감정 및 인지의 정도도 달라지며 이러한 이문화 인지도에 따라 사람들의 이문화에 대한 혹은 외래 관광객에 대한 태도 또한 변화한다.

태도는 선천적 본능과는 달리, 직접적인 경험의 반복이나 간접적인 언어의 학습 또는 단 한 번의 강렬한 체험 등이 바탕이 되어 후천적으로 형성된다. 그리고 경험의 축적이나 사회적 영향으로 변용될 수 있는 신축성을 포함하고 있으나, 반면에 언제나 대상에 대한 가치판단이나 호응의 감정이 수반한다는 점에서, 일단 형성되면 변화하기 어렵고, 장기간 고정성·지속성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최일호, 2006). 태도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세계경제포럼이 최근 발표한 ‘2011 관광산업 경쟁력 지수’ 세부 평가항목 중 ‘외래 관광객에 대한 태도’에서 우리나라는 최하위권인 125위에 그쳐 관광 친화성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관광업계는 국내외 관광객에 대한 ‘환대 서비스’ 실천이 시급하다는 인식에 따라 심지어 민간 차원의 운동본부를 출범시켰다.

이렇듯 직접적인 경험 혹은 간접적인 언어의 학습 등이 바탕이 되어 형성된 태도는 쉽게 변화하지 않고, 한번 잘못 형성된 태도는 지역사회 및 국제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태도 및 인성 형성에 있어 중요한 시기인 8세부터 13세의 초등학생들에게 이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올바른 이문화 인지 및 올바른 태도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초등학생들의 이문화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보고 이러한 인지도에 따라 초등학생들이 외래 관광객을 대하는 태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더 나아가 초등학생들의 올바른 이문화 인지 및 올바른 태도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첫째,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이문화 흥미도, 이문화 교육 참여도에 따라 이문화 인지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I 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높은 인지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외국 여행 경험이 있는 경우가 이문화를 더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직업에서는 자영업이나 농림어업 보다는 공무원, 서비스업에서 높은 인지가 나타난 반면 학년, 머무른 기간, 방문목적에 따른 이문화 인지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문화 흥미도, 이문화 교육 참여도에 따른 이문화 인지도 차이는 이문화 흥미도, 학습 기회성, 적극적 참여성 특성이 높을수록 이문화를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일선 학교에서는 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생의 수준에 맞는 문화 지도 내용을 선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이문화 인지도에 따라 외래 관광객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II 에 대한 검증결과 사회적 기여도, 적극성, 호의성 특성이 높을수록 이문화를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문화의 올바른 인지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아무리 정확한 언어라도 그 문화에 맞지 않게 사용한다면, 서로간의 오해를 불러 올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국제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상용(2001)의 연구에서 처럼 학생들이 이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이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이문화 흥미도, 이문화 교육 참여도에 따라 외래 관광객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III 에 대한 검증결과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외래 관광객에 대한 사회적 기여도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높은 기여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외국여행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경험이 있는 경우가 기여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의 직업에서는 아버

지, 어머니 모두 서비스업에서 높은 사회적 기여도가 나타났다.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외래 관광객에 대한 적극성에 대한 차이는 남성보다 여성이 높은 적극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외국여행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경험이 있는 경우가 적극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 직업에서는 서비스업에서 가장 높은 적극성이 나타났다.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외래 관광객에 대한 호의성에 대한 차이는 5학년보다 6학년이 높은 호의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외국여행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경험이 있는 경우가 호의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직업에서는 아버지 직업의 경우 서비스업에서 가장 높은 호의성이 나타났고, 어머니 직업은 기타에서 높은 호의성이 나타났다.

이문화 흥미도, 이문화 교육 참여도에 따른 외래 관광객에 대한 사회적 기여도에 대한 차이는 이문화 흥미도, 학습 기회성, 적극적 참여성의 특성이 높을수록 외래 관광객에 대한 사회적 기여도를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문화 흥미도, 이문화 교육 참여도에 따른 외래 관광객에 대한 적극성에 대한 차이는 이문화 흥미도, 학습 기회성, 적극적 참여성의 특성이 높을수록 외래 관광객에 대한 적극성을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문화 흥미도, 이문화 교육 참여도에 따른 외래 관광객에 대한 호의성에 대한 차이는 이문화 흥미도, 학습 기회성, 적극적 참여성의 특성이 높을수록 외래 관광객에 대한 호의성을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올바른 교육을 통해 초등학생들의 외국어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를 향상시킴으로써, 자기 문화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문화에 대한 지적인 호기심과 공감적 이해를 보일 수 있다는 고주분(2002)의 연구에서처럼 다시 한번 더 이문화의 인지를 강조하는 대목으로 학생들이 이문화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의 절실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이 이문화를 어떻게, 얼마나 인지하고 있고, 이러한 인지도와 태도간의 상관성에 대해 실증적으로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선 학교에서는 이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이문화 지도 내용을 선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며 다양한 방법의 지도를

통하여 이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태도 형성을 도와야 한다.

둘째, 초등학교 교육에서 이문화 교육이 반드시 포함되어 다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부나 교육청 등의 관계기관에서 적절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최근 ‘(사)제주관광학회’에서 『2011 제주도민 관광의식 진단과 선진화방안』을 주제로 제주관광 서비스 향상방안 모색을 위한 도민의 관광의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도민들의 관광에 대한 관심도와 관광객에 대한 호의성, 지역경제 발전 기여도 등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지속적인 도민대상 관광의식 교육을 추진하여 개방적 마인드를 갖춘 국제자유도시 주민으로서의 자질을 확립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결론을 볼 수 있었다.

지역주민이 관광객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관광주체인 만큼 지역주민의 긍정적인 관광의식을 고취시키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어릴 때 이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지 및 태도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라는 말이 있다. 좋고 나쁨을 떠나 어릴 때 형성된 습관은 바뀌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 해 주는 좋은 예이다.

어릴 때 이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태도 형성을 통하여 한 국가를 넘어 국제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 연구의 한계와 제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이문화 인지도에 따른 외래 관광객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 부족 등으로 인해 탐색적 연구로서 심도 있는 문헌연구에 한계가 있었다.

셋째, 이문화 인지도를 측정함에 있어서 주로 영어권 문화와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전체적인 이문화의 내용을 다루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를 반영하여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좀 더 일반화된 연구 결과를 위해 연구대상을 좀 더 포괄적인 범위로 설

정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이문화 흥미도, 이문화 교육 참여도, 이문화 인지도와 관련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제대로 된 측정 항목의 척도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이문화 인지도 측정에 있어서 이문화의 범위를 다양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향후 이런 문제가 극복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초등학생들의 이문화 인지도 향상 및 올바른 태도 신장을 통하여 관련분야에서의 이론적 발전과 더불어 관광산업의 발전,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1) 서적

- 곽호완 외 4인(2008). 『실험심리학용어사전』, 서울: 시그마프레스.
- 교육부(1999). 『초등학교 교육 과정 해설(V)』,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국어국문학회(2001). 『국어대사전』, 전북: 민중서관.
- 김미수 외 3인(1993). 『국어대사전』, 서울: 금성 출판사.
- 박용구 역(2005). 『이문화간 커뮤니케이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서봉연 외 1인(1995). 『인지발달』,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서용건(2011). 『국제관광(경영과 문화)』, 서울: 백산출판사.
- 손대현·장희정(2003). 『레저관광심리학』, 서울: 백산출판사.
- 오상훈(2005). 『관광와 문화의 이해』, 서울: 형설출판사.
- 유태용(1999). 『문화란 무엇인가』, 서울: 학연문화사, p.13.
- 이덕봉(2003). 『일본어교육의 이론과 방법』, 서울: 시사일본어사.
- 이덕훈(1999). 『글로벌 기업경영』. 서울: 학문사, p.390.
- 이삼열(2003). 『세계화 시대의 국제이해교육』,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
이해교육원 역, 서울: 한울아카데미, pp.16-82.
- 이정모 외(1998). 『인지심리학의 제 문제』, 서울: 학지사.
- 이학식·임지훈(2007). 『SPSS 12.0매뉴얼』, 파주: 법문사. pp.122-123.
- 박기순(2001). 『한국인과 문화간 커뮤니케이션』, 박영물출판사.
- 채서일(2007). 『사회과학조사방법론』, 서울: 비엠엔북스, pp.179-182.
- 최용재(1982). 『외국어 교습의 원리』, 서울: 고려원.
- 국립특수교육원(2009).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서울: 하우.
- 한광희 외 12인(2000). 『인지과학』, 서울: 학지사.

한상복·이문영·문광덕(1982). 『문화인류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히라노 겐이치로(2005). 『국제문화론』, 김동명·장인성 역, 서울: 풀빛.

2) 논문

강진근 외 1인(1998). 외국어 교수 & 학습의 원리.

고주분(2002). 초등영어 외국문화 교육의 중요성과 지도 방법에 관한 연구, 교육학석사학위 논문, 아주대학교.

김경희(2003). 불어불문학 전공 한국 대학생의 불문화 요구 및 인지도 분석,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김대행(2000). 다문화시대의 한국어교육, <외국어교육연구>, 『서울대학교 외국어교육연구소』.

김미숙(2004). 초등영어 교육의 문화지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김미승(2003). 독일어교육에서 문화 및 지역사정교육의 의미, <독어교육>,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김성섭·한학진·임수연(2007). 호주호텔직원과 한국인 관광객 간의 이문화로 인한 인식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호텔관광학회』.

김훈용(2010). 초등학교 3, 4학년 학생들의 인지도 비교 연구, 교육학석사학위 논문, 경인교육대학교.

민창기(1997). 호텔종사원의 문화간 수용능력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관광학회』.

민창기(2008). 외국어 능력과 이문화에 대한 태도의 상관관계, 『한국관광·레저학회』, 동서대학교.

민태일(2002). 초등 영어 교과서의 문화영역 지도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박윤경(2006). 민족 및 인종 편견 감소를 위한 초등 다문화교육, <초등 사회과 교육>, 『한국초등사회과교육학회』.

박윤경(2007). 다문화 접촉 경험의 교육적 의미 이해, <시민교육연구>, 『한국사

- 회과교육학회』 .
- 박정미(2006). 중학생들의 영어권 문화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계명대학교.
- 박진현(2002). 사회과 이문화 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교육대학교.
- 변찬복 외 1인(2010). 배낭여행객의 이문화 인식, 진정성 및 충성도의 구조적 관계. 『한국호텔외식경영학회』 .
- 성선재(2008). 전통문화를 활용한 역사교육 활동이 유아의 역사개념과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동재(2006). 컨벤션산업에 대한 지역주민 태도에 관한 연구: 대전지역을 대상으로, 『한양대학교 관광연구소』 .
- 양민애(2008). 한국어 교사 교육에서의 이문화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 『이중언어학회』 .
- 예상권(2011). 애착도와 공동체의식이 슬로시티 지역주민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신라대학교.
- 유광민 · 김기완 · 김남조(2007). 관광개발에서 주민태도연구의 비판적 고찰: 사회교환이론과 사회표상이론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관광연구소』 , 19(2), p.115.
- 유지윤 · 손대현(2004). 국제관광자의 이문화적 상호작용의 통합적 모델 구축, 『한국관광학회』 .
- 이상문(2002). 초등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태도 및 불안에 관한 연구, 교육학석사학위논문, 대구교육대학교.
- 이상용(2001). 초등 영어 교육에서의 효율적인 영미 문화 지도,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인천교육대학교.
- 이진아(2008). 다문화교육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인식과 태도.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순천대학교.
- 이효웅(1996). 한국 중 · 고등학생의 태도와 동기가 영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어교육학회』 .
- 정미애(1996). 초 · 중 · 고 학생들의 공간인지와 인지특성에 관한 연구: 인지도 분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 정인권(2004). 제7차 교육 과정에 의한 영어 교과서 문화 항목 분석: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규성(2004). 관광개발에 대한 현지주민의 태도 모형화 연구, 박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대학원.
- 최병길·송재호·김시영(2004). 지역관광개발 영향인식과 현지주민 태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 최일호(2006). 귀화식물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인지도와 태도, 교육학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 한명희(1997). 세계화 시대 한국의 교육과정(1)-교육과정의 세계화, <교육과정 연구> 15(1) 『한국교육학회』.
- 한종화(1983). 한국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인지 발달 단계, 한국교육개발원.
- 홍순천(2003). 초등학생의 영어학습에 대한 태도, 동기 및 동기상실 요인과 성취도와의 상관관계, 석사학위논문, 대구교육대학교.
- 황필아(1995). 원어민/비원어민 교사가 외국어 학습자의 태도/동기와 성취도와의 상관관계 양상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 국외문헌

- Ap, J.(1992). "Understanding host residents' Perception of the impacts of tourism through social exchange theory." Texas A & M Univ.
- Baker, C. M.(2000).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nd global competence*, report of meeting convened by Carnegie Corporation of New York.
- Bank, J. A.(1994). *An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 Boston: Allyn & Bacon: 양민애(2008). 한국어 교사 교육에서의 이문화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 『이중언어학회』, 38, p.240에서 재인용.
- Bank, J. A.(2002). *An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3rd ed.),

- Boston: Allyn & Bacon: 양민애(2008). 한국어 교사 교육에서의 이문화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 『이중언어학회』, 38, p.240에서 재인용.
- Bennett, J. M.(1993). *Cultural marginality: Identity issues in intercultural training*, In Piage, R. M.(Ed.), *Education for the intercultural experience*. Yarmouth, ME: Intercultural Press.
- Bogardus, E. S.(1967). *A forty-year racial distance study*. Los Angeles: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Press.
- Brislin, T., Cushner, K., Cherrie, C., & Yong, M.(1986). *Intercultural Interactions: A Practical guide*, Beverly Hills, CA: Sage: 김성섭 · 한학진 · 임수연(2007). 호주호텔직원과 한국인 관광객 간의 이문화로 인한 인식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호텔관광학회』, p.321에서 재인용.
- Brooks, N.(1964). *Language and language learning: Theory and Practice* (2nd ed.), New York: Harcourt, Brace and World: 박원(1996). 『영어교육학』, 인천: 인하대학교 출판부, p.427에서 재인용.
- Brooks, N.(1964). *Language and language learning: Theory and Practice* (2nd ed.), New York: Harcourt, Brace and World, pp. 83-85.
- Brown, H. D.(2000).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4th ed), New York: Longman. p.177.
- Burns, P. M., & Holden, A.(1995). *Tourism: A new perspectiv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김성섭 · 한학진 · 임수연(2007). 호주호텔직원과 한국인 관광객 간의 이문화로 인한 인식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호텔관광학회』, p.321에서 재인용.
- Dodd, C. H.(1998). *Dynamics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5th ed.), New York: McGraw Hill: 변찬복 외 1인(2010). 배낭여행객의 이문화 인식, 진정성 및 충성도의 구조적 관계. 『한국호텔외식경영학회』, 19(4), p.262에서 재인용.
- Dodd, C. H.(2007). Intercultural readiness assessment for pre-departure candidates, *Journal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studies*, 16(2), pp.1-17.

- Edward H. Spicer(1961). *Perspectives in American Indian Culture Change*(e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Fridgen, J.(1991). *Dimensions of tourism*. East Lansing, MI: Educational Institute of the American Hotel and Motel Association: 김성섭 · 한학진 · 임수연(2007). 호주호텔직원과 한국인 관광객 간의 이문화로 인한 인식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호텔관광학회』, p.321에서 재인용.
- Gardner, R. C.(1985). *Social psychology and second language learning*. London: Edward Arnold.
- Gudykunst, W. B., Wiseman, R. L., & Hammer, M. R.(1977). *Determinants of a sojourner's attitudinal satisfaction: A path model*. In Ruben, B.(Ed.), *Communication yearbook I*.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ress: 민창기(2008). 외국어 능력과 이문화에 대한 태도의 상관관계, 『한국관광 · 레저학회』, 부산: 동서대학교 출판부, 20(4), pp.163-164에서 재인용.
- Gudykunst, W. B.,(1983). Toward a Typology of Stranger-Host Relationship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sultural Relations*, 7, pp.401-413: 김성섭 · 한학진 · 임수연(2007). 호주호텔직원과 한국인 관광객 간의 이문화로 인한 인식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호텔관광학회』, p.322에서 재인용.
- Hall, E. T.(1959). *The silent language*. New York: Double day.
- Hall, E. T.(1965). *The hidden dimension*. New York: Doubleday.
- Hermann, G.(1980). Attitudes and success in children's learning of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The motivational vs. the resultative hypothesis. *English Language Teaching Journal*, 34(4), pp.247-254.
- Hammer, M. R., Bennett, M. J., & Wiseman, R.(2003). Measuring intercultural senssitivity: The intercultural development inventory.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7, pp.421-423.
- Jackson, J.(2008). Globalization, internationalization, and short-term stays abroad,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article in

press, p.10.

Jurowski, C., Uysal, M. & Williams, D. R.(1997). "A theoretical analysis of host community resident reactions to tourism." *Journal of Travel Research*, 35(2): 3-11.

Kroeber, A. L. and Kluckhohn, C.(1952). *A critical review of concept and Definitions of culture*. New York: Vintage Books: 김영복, (1997). 『문화사회학』.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p.4에서 재인용.

Lawson, R., Merrett, T., & Williams, J.(1996). *The social impacts of tourism—a review of the literature with special emphasis on New Zealand*. Department of Marketing, University of Otago, Dunedin: 김성섭 · 한학진 · 임수연(2007). 호주호텔직원과 한국인 관광객 간의 이문화로 인한 인식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호텔관광학회』, p.322에서 재인용.

March, R.(1997). Diversity in Asian Outbound Travel Industries: A Comparison between Indonesia, Thailand, Taiwan, South Korea and Japan, *International Journal of Hospitality Management*, 16(2), pp.231-238: 김성섭 · 한학진 · 임수연(2007). 호주호텔직원과 한국인 관광객 간의 이문화로 인한 인식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호텔관광학회』. p.321에서 재인용.

Mcguire, W. J.(1997). *The nature of attitudes and attitude change*, in G. Lindzey(ed),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Addison-Wesley Co, p.157.

McIntosh, A. J.(2004). *Tourists' appreciation of Maori culture in New Zealand*. *Tourism Management*, 25, pp.1-15.

Milbrath, L. W. & Gole, M. L.(1977). "Political participation: How and why do people get involved in politics?"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Pizam, A. & Sussmann, S.(1995). Does nationality affect tourist behavior? *Annals of tourism research*, 22(4), pp.901-917: 김성섭 · 한학진 · 임수

- 연(2007). 호주호텔직원과 한국인 관광객 간의 이문화로 인한 인식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호텔관광학회』, p.321에서 재인용.
- Pizam, A., Uriely, N., & Reichel, A.(2000). *The Intensity of Tourist-Host Social Relationship and Its Effects on Satisfaction and Change of attitudes: the Case of Working Tourists in Israel*. *Tourism Management*, 21, pp.395-406.
- Reisinger, Y.(1994). *Social contact between tourists and hosts of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 in tourism the state of the art*, Seaton, A. V.(ed.), New York: John Wiley & Sons, pp.743-745.
- Reisinger, Y., & Turner, L.(1998).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Mandarin-speaking tourists and Australian hosts and their impact on cross-cultural tourist-host interaction.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42, pp.175-187: 김성섭 · 한학진 · 임수연(2007). 호주호텔직원과 한국인 관광객 간의 이문화로 인한 인식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호텔관광학회』, p.322에서 재인용.
- Reisinger, Y., & Turner, L.(2002).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Asian tourist markets and Australian host, *Journal of Travel Research*, pp.374-384.
- Robertson, T. S., Jelinski, J. and Ward, S.(1984). *Consumer Behavior*, Scott: Foresman and Company, pp.247-248.
- Rosenberg, M. J.(1976). Cognitive structure and attitudinal affect,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3(56), pp.34-40.
- Sakuragi, T.(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attitudes toward language study and cross-cultural attitud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0, pp.19-31.
- Sakuragi, T.(2008). Attitudes toward language study and cross-cultural attitudes in Japa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2, pp.81-90.
- Scott, W.(1965). *Psychological and social correlates of international images*.

- In Kelman, H.(Ed.), International behavior: A social psychological analysis.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민창기(2008). 외국어 능력과 이문화에 대한 태도의 상관관계, 『한국관광·레저학회』, 부산: 동서대학교 출판부, 20(4), p.160에서 재인용.
- Smith, V.(1989). *Host & Guest: The anthropology of tourism*(2nd ed), Philadelphia: Univ. of Pennsylvania Press.
- Thyne, M., Lawson, R., Todd, S.(2006). *The use of conjoint analysis to assess the impact of the cross-cultural exchange between hosts and guests*. *Tourism Management*, 27, p.201-213.
- Ting-Toomey, S.(1993). *Communicative resourcefulness: An identity negotiation perspective*. In Wiseman, R. & Koester, J.(Eds.), *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mpetence*. Newbury Park, CA: Sage.
- Tolman, E. C.(1932). *Purposive behavior in animals and men*, Century, New York.
- Vygotsky, L. S.(1962). *Thought and Language*, Cambridge, Mass., P.51
- Wang, N.(1999). Rethinking authenticity in tourism experience, *Annals of tourism research*, 26(2), pp.349-370: 변찬복 외 1인(2010). 배낭여행객의 이문화 인식, 진정성 및 충성도의 구조적 관계. 『한국호텔외식경영학회』, 19(4), p.262에서 재인용.
- Wiseman, R. L., Hammer, M. R, & Nishida, H.(1989). Predictors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mpet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3(3), pp.349-370: 민창기(2008). 외국어 능력과 이문화에 대한 태도의 상관관계, 『한국관광·레저학회』, 부산: 동서대학교 출판부, 20(4), p.163에서 재인용.
- WTO(2001). *Seoul declaration on peace and tourism*. The 14th general assembly in Korea/Japan. Sep. 9. pp.23-27. Seoul.

<부록>

설문지

異文化 인지도에 따른 외래 관광객에 대한 태도 연구 조사

-서귀포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이문화 인지도에 따른 외래 관광객에 대한 태도 연구”라는 주제로 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도움을 자료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설문지가 묻고 있는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평소에 가정이나 학교에서 자신이 배우고 경험한 이문화에 대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 해 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읽고 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2011년 4월

지도교수: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관광경영학과 서용건 교수

연구자: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과정 고민정

연락처: Mobile: 010-6690-3910, E-mail: lomjkhve@hanmail.net

※ 다음은 이문화에 대한 흥미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해당하는 번호에 V표 해주세요.

설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이문화에 흥미와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외국 영화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외국어에 흥미와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외국어 수업이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이문화 교육 참여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해당하는 번호에 V표 해주세요.

설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외국어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외국어 학습을 매일 꾸준히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외국어로 된 동화책을 본다.	①	②	③	④	⑤
4. 학교 외국어 수업시간 외에 이문화에 대해 배운 기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학교 영어 수업시간에 영어권 문화에 대해 배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학교 밖에서 이문화에 대해 배운 적이 있다. (*각종 과외, 학원 및 여행)	①	②	③	④	⑤
7. 학교 영어 수업 시간에 이문화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이문화 인지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인지 정도에 따라 해당하는 번호에 V표 해 주세요.

설문내용	전혀 아니다	조금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외국의 문화에 대하여 알고 있다. (예: 식사예절, 일상 생활문화 등)	①	②	③	④	⑤
2. 외국 사람들은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의 눈을 쳐다본다.	①	②	③	④	⑤
3. 다른 나라의 음식에 대하여 알고 있다. (예: 미국의 햄버거, 영국의 피쉬 앤 칩스 등)	①	②	③	④	⑤
4. 영어권 국가의 사람들은 이름을 말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성을 먼저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외국인을 직접 만나 영어로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외국인들의 일상회화를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외국인들의 행동이나 제스처를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이문화와 한국문화의 차이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외래 관광객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해당하는 번호에 V표 해주세요.

설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외래 관광객은 우리 지역의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위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외래 관광객은 우리 지역의 경제적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외래 관광객에 대해 친절하게 대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외래 관광객에게 먼저 인사를 하는 등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외국어로 길을 물어보는 관광객에게 언어소통이 힘들어도 적극적으로 안내할 생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외래 관광객에게 먼저 인사를 할 마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외래 관광객 방문효과에 대한 인식**에 대해 묻는 질문입니다.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해당하는 번호에 V표 해주세요.

설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지역에 관광산업은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외래 관광객의 증가는 우리 지역의 경제를 좋게 만든다.	①	②	③	④	⑤
3. 외래 관광객의 증가는 우리지역 내 일자리를 늘어나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외래 관광객을 통해 우리 지역 내 생산물(농수산물 등)의 소비가 늘어난다.	①	②	③	④	⑤
5. 외래 관광객을 통해 우리 지역이 다른 국가에 알려지는 효과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외래 관광객 증가는 우리 지역 내에 여러 가지 관광지들이 늘어나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외래 관광객의 증가로 우리 지역이 깨끗해지는 효과가 있다(쓰레기 치우기, 환경정비 등).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여러분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답해 주세요.

1. 성별?

- ① 남 ② 여

2. 학년?

()학년

3. 외국에 다녀온 경험?(해외여행, 어학연수, 친척집 방문 등)

- ① 있다 ② 없다

▶ 위 문항에서 ①번을 선택하였다면 3-1번으로 이동하고, ②번을 선택하였다면 4번으로 이동하여 주세요.

3-1. 머무른 기간?

- ① 1주일 이내 ② 1주일 이상 ③ 1개월 이상 ④ 6개월 이상
⑤ 기타()

3-2. 방문 목적?

- ① 관광 ② 친지방문 ③ 어학연수 ④ 기타()

3-3. 외국에 다녀온 경험이 있다면 어느 나라에 있었습니까?

(나라 이름:)

4. 부모님의 직업?

- 아버지: ① 공무원 ② 자영업 ③ 농림어업 ④ 서비스업
⑤ 기타()

- 어머니: ① 공무원 ② 자영업 ③ 농림어업 ④ 서비스업
⑤ 기타()

ABSTRACT

A Study of Attitudes toward International Tourists According to Recognitions of Other Cultures

-Focused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Seogwipo-

by Min-Jeong Ko

Department of Tourism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We live in the world where people regularly contact with diverse cultures. Nations have their own cultures which change and develop constantly. Therefore, people change their perceptions and recognitions about these cultures. These perceptions are formed through a lifetime of experience. So it is very important to learn and form the right attitudes towards other cultur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value of recognition and understanding of cultures and attitudes of international tourists. Furthermore to provide what helps students improve their recognitions of other cultures and attitude of international Tourists.

This study was conducted using survey method From April 14th to 25th, 2011, 43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who live in Seogwipo, Jeju. Out of 430 questionnaire, 430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and a total of 416 questionnaires were finally used for analysis. To accomplish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the theoretical review was preformed and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T-test, ANOVA analysis, were used for the statistic analysis using SPSS 12.0 for Windows.

It was learned that students who visit abroad have more recognitions about other cultures and through these recognitions have more positive attitude and goodwill toward international Tourists. The study established that by making young students aware of importance of other cultures. It help generate right kind of attitudes towards international tourists.

The result of the study also suggest that teachers should notice how their students understand other cultures correctly. Therefore, students could understand and learn about cultural diversity and importance. Also other organs of educational system should support the cultural education in the elementary schools so that they could understand difference and value of other cultures.

Understanding other cultures especially at a young age is very important and it makes people have more positive attitude, thinking and recognitions. In the future, more case studies could be implemented by selecting multiple regions for comparative analysis of recognitions of other cultures. I hope that the result of this research would be used as a basic data for developing not only Jeju tourism but also competitiveness of Korea.